

한글재민체 소고
韓契在民體 小考

박재갑 · 김민 지음

한글재민체연구회 韓契在民體研究會
Hangeul Jaemin Type Association

책명 한글재민체 소고
韓契在民體 小考

초판 1쇄 발행 2023년 5월 5일
2쇄 발행 2023년 8월 15일

지은이 박재갑 朴在甲 Park Jae-Gahb
김민 金民 Kim Min

펴낸이 박재갑

도운이 김해림

디자인 김미애

본문조판 프린팅랩

펴낸곳 한글재민체연구회

등록 제2022-000176호(2022년 9월 2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4길 30, 501동 1401호

전화 02-766-8080

이메일 hangeuljaemin@gmail.com

홈페이지 <http://www.hangeuljaemin.kr>

©한글재민체연구회

* 출판은 대신송촌문화재단에서 지원하였습니다.

* 사전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ISBN : 979-11-980056-1-8 (PDF)

한글재민체 소고
韓契在民體 小考

지은이

박재갑 朴在甲 www.jgpark.net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다 2013년 퇴직을 하였다. 2000~2006년 국립암센터 초대 및 2대 원장을 역임하고, 2010~2011년 법인으로 전환된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대한암학회 이사장, 대한대장항문학회 이사장, 세계대장항문학회ISUCRS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1991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세포주연구재단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 서울대학교 의학박사. 성균관대학교 철학박사. 국내 단행본으로 대장항문학(일조각, 1991, 2000, 2005, 2012.), 종양학(일조각, 2003, 2012.) 등 13권, 국외 단행본으로 Atlas of Human Tumor Cell Lines, Academic Press, 1994) 등 12권, 국내 논문 228편, 국제 논문 218편을 발표하였다. 2011년~2014년 충청북도 제1기 및 제2기 명예도지사, 2001년 황조근정훈장, 2003년 제18회 성곡학술문화상, 2005년 세계금연의날 WHO(세계보건기구) 금연공로상, 2005년 세계금연지도자상(폴란드 건강증진재단), 2008년 미국대장외과학회 최우수 논문상, 2009년 제11회 관악대상, 2018년 국민훈장무궁화장 등을 수상하였다.

김민술氏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부터 2년간 일본의 세계적인 CI 전문회사 (주)파오스에 근무하며 스미토모은행, 기린맥주, 캔우드, 브릿지스톤, 조지루시 등의 CI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귀국 후 1990년에는 파오스 서울을 설립하여 (주)한샘의 CI프로젝트 등을 진행하였다. 1993년까지 (주)CDR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데이콤, OB 맥주, 삼성중공업 등의 CI작업을 주도하였으며, 1996년 미국 RISD(Rhode Island School of Design)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999년 국민대학교에 부임하였다. 2005년에는 천상병 시인의 각종 필적들을 찾아내 디지털폰트로 완성하였고 신영복, 윤동주 등의 육필 복원 디지털 폰트를 비롯하여 CJ그룹, GS칼텍스, 이견산업 등 다수의 기업 전용 서체를 디자인하였다. 현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원장으로 재직중이며, 2012년 제2회 사회적기업의 날 정부포상 '고용노동부장관상', 2013년 제25회 아산상(재능나눔부문), 2017년 제19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2021년 제12회 봉래상 등을 수상하였다.

일러두기

* 어서, 어필의 명칭은 원본에 따라 명칭이 다르게 됨.

* 언찰, 언간의 명칭은 원본에 따라 명칭이 다르게 됨.

한글재민체 소고
韓契在民體 小考

박재갑 · 김민 지음

한글재민체연구회 韓契在民體研究會
Hangeul Jaemin Type Association

머리말

단상斷想 및 감상鑑賞

저 박재갑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재직하다가 2013년 8월 말 정년을 맞은 대장암 전문 외과 의사로서 7천여 명의 환자들을 수술한 바 있습니다. 의사 생활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고 싶어 2010년부터는 홍익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유화(안상진 교수), 민화(송규태 화백), 펜담채화(안석준 화백)를, 김영택 화백으로부터 펜화를 배운 바 있습니다. 그 후 정진웅 선생으로부터 서각을, 김동각 선생으로부터 전각을, 최인수 교수로부터 조각을 배우고, 2018년부터는 저의 이름 석 자라도 제대로 쓰고 싶어 서예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심은 전정우 선생, 고산 최은철 박사, 초정 권창륜 선생으로부터 짧은 기간이지만 서예 기초에 관한 사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글자를 쓰고 싶은 생각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의원개원칙서』에 담긴 한글 서체가 그동안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고 단아하고 깨끗하며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고귀한 서체가 현재는 사라지고 없어졌나 하는 아쉬움에 『대한의원개원칙서』의 붓글씨 서체를 되살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한문 혼용의 『대한의원개원칙서』를 한글학자 박갑수 교수에게 부탁드려 기존의 국역 문장을 다듬은 후 개원칙서의 글꼴과 유사하게 반복하여 붓으로 써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 설날에 인사차 방문한 국민대학교 김민 교수가 이 모습을 보고 반기며 본인의 정년이 8년 남았는데 마지막 업적으로 함께 『대한의원개원칙서』에 기반한 서체 개발을 하고 싶다고 희망하였습니다. 저는 서체 개발에 관하여 전혀 아는 것이 없는 문외한이었으므로 큰 귀인을 만난 셈이었습니다.



그림 1. 『대한의원개원칙서』 원본 43.0x59.0cm

『대한의원개원칙서』,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
www.heritage.go.kr

저 김민은 2000년 국립암센터의 심볼 및 로고로 선정된 작품을 디자인 한 홍석표의 지도교수로 당시 국립암센터 원장으로 재직중이던 공동저자 박재갑과 인연을 맺게 된 후로 박재갑이 하는 공익활동 단체인 『한국세포주연구재단』, 『담배없는세상연맹 (Tobacco Free World Alliance, ToFWA)』, 『글로벌문화경제포럼(Global Culture & Economy Forum)』의 로고, 그리고 영문서적인 『담배제조및매매 금지(Banning Tobacco)』의 표지 디자인 등을 재능 기부하여 왔습니다.

한글은 위대한 글

한글은 위대한 큰 글입니다. 한글은 영어, 중국어, 일어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언어를 품어야 합니다.

한글의 세계화를 위하여 2022년 8월 8일에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원장 이호영 교수 등과 함께 『한글재민체연구회』를 창립하였습니다.

2022년 한글날에는 중국의 기본 간체자 6,700자를 탑재시킨 『한글재민체4.0』이 완성되었으며, 일본어(和文) 가나 문자 181자 및 일본 한자 964자를 추가로 완성하여 최종 검수 작업이 끝나는 2023년 5월에 우리나라 최고의 글꼴 전문회사인 (주)윤디자인그룹을 통하여 대학 및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5만 벌을 무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대신파이낸셜그룹의 지원을 받아 11,172자의 본문용 한글과 표준한자 4,888자 및 간체자 6,700자로 구성된 『한글재민체5.0』 개발작업이 시작되어 훈민정음 반포 577주년이 되는 2023년 한글날에 『한글재민체5.0』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세계 모든 언어의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풀어쓰기 전용 『한글재민체6.0』이 동시에 출시됩니다.

감사드립니다

2018년 서예 공부를 시작하고 2019년부터 『한글재민체』 개발을 시작한 후 2020년 10월 8일 『함께 쓰고 함께 그리다 - 개원칙서에서 한글

재민으로』 전시와 함께 『한글재민체1.0』을, 2021년 11월 2일 『함께 쓰기 - 한글과 한자 -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2.0으로』 전시와 함께 『한글재민체2.0』을, 2022년 5월 25일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 전시와 함께 『한글재민체3.0』을, 2023년 1월 11일 『한글재민체 한글서예 초대전 - 개원칙서와 보건의료』, 그리고 2023년 『한글재민체소고』 출판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분과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명대학교 고문헌실, 고규창, 고인수, 고재석, 곽노봉,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권동순, 권재일, 권진호, 권창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길희성, 김기석, 김두현, 김동각, 김동진, 김미애, 김상태, 김선숙, 김성기, 김성수, 김수하, 김연수, 김응학, 김인걸, 김인규, 김정수, 김정은(서울의대 학장), 김지명, 김지영, 김채식, 김해림, 김현승, 김호, 대신송촌문화재단, 박갑수, 박기호, 박병천, 박상철, 박영국, 박용만, 박윤정, 박정숙, 박중신, 박지원(서울대학교병원), 배광식, 봉래출판문화재단, 부산시립박물관, 부정애, 서울대학교 도서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서준, 서홍관, 성인근, 성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손용석, 송하경,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신선호, 심동섭, 안병욱, 안중근의사기념관, 안취준, 양홍석, 연합뉴스, 오강남, 오석원, 오죽헌시립박물관, 유흥준, 윤동한, 윤디자인, 윤양희, 윤진영, 이규복, 이규선, 이기동, 이동훈, 이배용, 이상백, 이석연, 이어룡, 이태준, 이태진, 이필숙, 이현주, 이호영, 임기연, 임원선, 임홍재, 장명국, 장민환, 장지훈, 장혜자, 전광배, 전정우, 정광, 정상혁, 정재영, 정진웅, 정해창, 조선일보, 조용진, 진황가, 최병구, 최은철, 최재혁, 최홍식, 편석훈, 표학길, 하철용,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글학회, 험버트박사기념사업회, 한재영, 한재훈, 함민숙, 허경무, 허성도, 허유미, 홍윤표, 황문환, 황상익, 황준석(가나다순, 직함 및 존칭 생략)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박재갑은 32종류의 정자체 작품들을 원본에 충실하여 모서摹書 하였으나 서력書歷이 일천日淺하여 미치지 못함을 자인自認하며, 동도제현同道諸賢의 질정叱正을 기대합니다.

2023년 5월 박재갑·김민

목차

머리말 : 단상斷想 및 감상鑑賞

제1장 개요	9
1.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의 탄생	9
2. 「契(글)자와 글」	10
3. 겨레의 글 한글	10
4. 『한글재민체』 보급과 새로운 한글정자체의 발굴	12
5. 『한글재민체소고韓契在民體小考』의 내용	12
제2장 서사자書寫者	13
1. 서사관書寫官	13
2. 사자관寫字官	15
3. 필경사筆耕士·사수寫手	22
4. 전문경력관專門經歷官	23
5.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서사자書寫者	24
제3장 서체書體	25
1. 한글서체韓契書體	25
2. 한글정자체韓契正字體의 분류分類	30
3. 한글서체표韓契書體表와 한글서체도韓契書體圖	31
4. 한자서체漢字書體 해서체楷書體의 분류分類	33
제4장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37
1.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1.0	37
2.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2.0	39
3.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	39
4.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4.0,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5.0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6.0,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7.0	39
5.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 한글韓契 2,350자	43
6.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 한자漢字 8,682자	47
7.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 로마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 및 주요 문장부호	63

제5장 한글정자체韓契正字體 작품作品	65
1.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 1455년	66
2. 훈민정음 언해본訓民正音諺解本, 1459년	69
3. 상원사중창권선문上院寺重創勸善文, 1464년	71
4. 삼강행실도연해三綱行實圖諺解, 1481년?	75
5. 선조국문유서宣祖國文諭書, 1593년	79
6. 선조가 숙의에게宣祖가 淑儀에게, 1597년, 선조30년	81
7. 선조어필宣祖御筆, 1603년, 선조36년 11월 19일	83
8. 선조대왕어필언간宣祖大王御筆諺簡, 1603년, 선조36년 동짓달	85
9. 효종대왕어서孝宗大王御書, 1652~1659년	86
10. 숙종대왕언찰어필肅宗大王諺札御筆, 1685년, 숙종11년 6월	88
11. 숙종대왕어필, 명안공주방肅宗大王御筆, 明安公主房, 17세기	90
12. 숙종대왕언찰어필, 숙명공주방肅宗大王諺札御筆, 淑明公主房, 숙종25년, 1699년	93
13. 소훈이씨제문昭訓李氏祭文, 1721년	95
14. 어제자성편언해御製自省編諺解, 1746년	99
15. 천의소감언해闡義昭鑑諺解, 1755년	105
16. 고문진보언해古文眞寶諺解, 영조년간	107
17. 임산예지법臨產豫知法(18세기)	109
18. 언서첩諺書帖, 1802년	113
19. 유빈박씨애책문綏嬪朴氏哀冊文, 1823년	115
20. 학석집(익종)鶴石集, 19세기	116
21. 대전중궁전상존호시왕세자자내친상책보진치사전문 표리행례홀기大殿中宮殿上尊號時王世子自內親上 冊寶進致詞箋文表裏行禮笏記, 1827	117
22. 대조선국대군주국서大朝鮮國大君主國書, 1883년 6월 12일	118
23. 국서제정사國書提呈辭, 1883년 9월 18일	121

24. 명성황후상존호옥책문	123	15. 역질 관련 영조 윤음 英祖癘疫綸音	183
明成皇后加上尊號玉冊文, 1890년		16. 무오년 독감 戊午年毒感	185
25.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	125	17. 천화 天和	187
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1894년, 왕실고문서 622		18. 천물무간 天物無間	190
26.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	127	19. 천지인상생심 天地人相生心	192
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1895년, 왕실고문서 613			
27. 프랑스 대통령 취임 축하 국서	129	제7장 인장印章 작품作品	193
大法國大伯理就任祝賀國書, 1899년, 왕실고문서 617		1. 체천지보 體天之寶, 1464년	194
28. 외진연시무동각정제무도홀기	131	2. 유서지보 諭書之寶, 1593년	196
外進宴時舞童各呈才舞圖笏記, 1901년		3. 대재건원 大哉乾元, 1603년	199
29. 책황귀비홀기 冊皇貴妃笏記, 1903년	133	4. 대조선국보 大朝鮮國寶, 1894, 1895년	200
30. 고종황제의 밀서 高宗皇帝密書, 1906년 1월 29일	135	5. 대한국새 大韓國璽, 1906년	202
31. 대한의원개원칙서 大韓醫院開院勅書, 1908년 10월 24일	137	6. 외무대신 外務大臣, 1894년 10월 11일	204
32. 서순행일기 西巡幸日記, 1909년 1월 27일 ~ 2월 3일	139	7. 외부대신 外部大臣, 1895년 5월 3일, 1899년 10월 30일	205
		8. 칙명지보 勅命之寶, 1908년	206
제6장 『한글재민체 韓契在民體』 작품作品	141	칙명지보(한글), 2020년	
1. 정대마도교서 征對馬島敎書	147	부록	207
2. 징비록서문 懲毖錄自書	151	1. 그림 목록	207
3. 선조국문유서 宣祖國文諭書	153	2. 표表 목록	207
4. 고종이 지어 팔도와 사도의 노인과 백성들에게 내린 윤음	155	3. 한글정자체 韓契正字體 작품 목록	208
御製諭八道四都耆老人民等綸音		4. 한글재민체 韓契在民體 작품 목록	210
5. 삼일독립선언서 三一獨立宣言書	157	5. 모각 模刻, 복각 復刻 및 새김 刻 작품 목록	211
6. 선언서 宣言書	161	6. 참고문헌	212
7. 대한민국임시헌장선포문 大韓民國臨時憲章宣佈文	165		
8. 학부대신께 올리는 글 上學部大臣書	167		
9. 上學部大臣書 학부대신께 올리는 글	171		
10. 학부대신답서 學部大臣答書	174		
11. 칙령 제7호 勅令第七號	175		
12. 칙령 제9호 勅令第九號	177		
13. 대한의원개원칙서 大韓醫院開院勅書	179		
14. 경성의학전문학교 형설기념 사진첩 머리말	180		
京城醫學專門學校 螢雪記念 寫真帖 序文			

제1장 개요

『대한의원개원칙서』(국가등록문화재 제449호, 2009년 10월 12일 지정)는 1908년 10월 24일 대한의원 개원일에 황제 순종이 내린 칙서勅書(임금이 훈계하거나 알릴 내용을 적은 글)로, 가로 세로 11cm 크기의 『칙명지보勅命之寶』 국새國璽가 찍혀있다. 선왕인 고종 대부터 추진한 일을 매듭지은 것임을 밝히고 백성들에게 의료의 혜택이 미치도록 하라는 황제의 뜻이 담긴 이 칙서는 대한의원이 대한제국의 공식 기관임을 선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공식 문서로서 의학적·상징적 가치가 크다. 1906년 1월 설치된 통감부는 기존 대한제국의 의료기관인 광제원, 의학교, 대한국적십자병원을 병합하기로 결정하고 관제 제정 및 병원 신축을 통해 1908년 대한의원을 개원하였으며, 이후 대한의원은 한국 최고 수준의 서양 의학을 시술하는 병원인 동시에 식민지 보건 의료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였다.

1.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의 탄생

『재민체』라는 이름의 탄생은, 김민金民이 이메일로 자료를 보낼 때 서로의 이름에서 재在와 민民을 따서 재민在民이라는 파일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서 영감을 얻어, 우리가 개발하는 글꼴은 주권재민主權在民도 있으니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로 하자고 합의하고 한글재민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한글재민체 개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작은 글이라도 새로 만드는 서체로 작품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에서 고산(최은철) 서실에서 함께 지도받는 문하생들(고현 정봉규, 금정 홍서진, 석담 정덕선, 송산 황의암, 연재 황수진, 유당 조현성, 유전 한정녀, 재민 박재갑, 차화 유희자, 초암 최준용, 창연 장사익 찬조 참여)과 함께 한글서예전 『고산서원창립35주년기념 한글초대전, 사랑』이라는 전시(2019. 11. 08.~16., 소허당)를 개최하였다. 박재갑은 김민이 만들어준 서체(한글재민체 0.5) 모본을 모사한 강안나 시인의 『그대 눈꽃 사랑』과 미국 아파치족 결혼 축시 『동행』을 출품하였다. 이 전시를 위한 박재갑의 세필 작품을 본 김민은 한글재민체의 서체 개발 방향을 재설정하여 2020년 한글날 『한글재민체1.0』을 선보이게 되었다.

오랜 기간 여러 서체에 관한 개발 경험이 있는 김민이 함께 하게 되어 한글재민체 개발은 날개를 단 셈이 되었다. 마침 미국에서 대학(The Art Institute of Chicago)을 졸업하고 뉴욕의 활자 공방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규선 양(2022년 8월 박사학위 취득)이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한글재민체 개발에 참여하며 속도가 붙었다. 한글재민체 서체 개발이 이렇게 커지고 할 일이 많은 줄 박재갑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 박재갑은 서체 개발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았다면 시작을 안 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몰라서 다행이었다는 생각도 든다.

『한글재민체1.0』(2020년 10월 8일), 『한글재민체2.0』(2021년 11월 3일), 『한글재민체3.0』(2022년 5월 25일)의 저작권은 전 국민은 물론

세계시민 누구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되었다.

2022년 5월 25일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특별전에서 한글학자 박갑수 교수가 다음과 같은 축사를 하였다. “『축하의 말씀』 축하합니다. 축하하고, 축하하고, 또 축하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재민체在民體』 글꼴의 완성과 전시를 축하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소통을 해야 합니다. 소통을 하자면 언어와 문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우리말이 있고, “한글”이란 훌륭한 문자가 있습니다. 文字生活은 보다 원만한 소통을 위해 國漢混用을 하거나, 한글에 한자를 병기합니다. 朴在甲 이사장님은 그간 국민대학의 김민금민 교수와 함께 在民體 글꼴을 개발하셨습니다. 단아하고 예쁜 글꼴입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을 글꼴입니다. 2020년 10월 8일 한글 글꼴을 개발하여 발표회를 가지셨고, 2021년 11월 2일, 2차로 漢字 글꼴을 약 5,000자 개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 5월 25일 제3차로 漢字 8,682자의 글꼴을 개발하여 在民體 글꼴 개발의 大尾를 장식하고, 發表會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축하드립니다. 主權在民의 정신에 따라 개발된 在民體 글꼴은 그 자체로서 훌륭한 사업이나, 국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데도 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세종대왕의 愛民精神의 구현이라 하겠습니다. 在民體 글꼴 개발 사업 자체가 훌륭한 문화사업인데 글꼴을 사회에 환원하셨다는 데에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국어학도의 한 사람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끝으로 在民體 글꼴이 많이 애용되기를 바라며, 박 이사장님께서 더욱 건강하시고,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좋은 일 많이 하시기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25. 박갑수 드림”

박갑수, 「축하의 말씀」, 『개원칙서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으로』 특별전에서, 2022. 5. 25.

2. 「契(글)자와 글」

한자漢字 8,682자의 글꼴을 개발한 후 2022년 5월 25일의 전시 제목으로 『개원칙서에서 한글재민체3.0으로』로 정하고 제목에 한자漢字를 병기竝記하려고 하니 『글』의 한자로 음역자音譯字 𠵹을 써도 되는지 어떤 한자로 써야 하는지 몰라서 고민하던 중, 신선호申善浩 회장께서 글은 契이라는 고유한 한자가 있다고 하면서 글자契字의 탄생 배경을 설명하여 주었는데, 그때 신 회장이 설명하여 준 내용이 「契(글)자와 글」이라는, 진태하陳泰夏의 글과 똑같아 아래에 인용한다.

신선호, 개인 교신, 2022. 3. 17.

전광배, 개인 교신, 2023. 3. 16.

한자의 자음을 형성하고 있는 바탕이 되고 있는 말은 우리의 조상인 동이어東夷語에서 그 연원을 찾아야 한다. 그 첫째로 찾은 것이 ‘글契’이다.

은대殷代의 ‘갑골문’에서는 글자를 무엇이라고 일컬었을까? 갑골문에서 쓰인 글자의 자형은 ‘物’의 형태였다. 이 글자는 ‘ㄱ’와 ‘𠵹’의 상형자로서 곧 칼(ㄱ→刀)로써 나뭇조각에 숫자를 새긴 것(𠵹→丰)을 나타낸 것이다. 옛날에는 상대에게 만일 돼지를 5마리 주었다가 뒤에 돌려받으려면 어떤 징표徵標가 있어야 하므로, 나무판에 그 수를 칼로 새기어 반으로 쪼개어 서로 지니고 있다가 뒤에 맞추어 일치하면 약속을 이행했던 것을 위와 같은 자형으로 표현한 것이다. 뒤에 나무판에 이렇게 새긴다는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契契’의 자형으로 바뀌고, 또한 이러한 약속은 대략大約 곧 큰 약속을 할 때 한다는 뜻으로 ‘契’의 자형으로 바뀌어 쓰였다.

‘物(契)’자의 발음이 옛날에 ‘기흘절欺訖切’의 반절음反切音으로서 ‘글’이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자를 ‘글’이라고 일컫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뿐이다. 우리말의 글씨를 ‘쓰다’보다 더 옛말이 ‘긋다’이다. 또한 우리말에는 글씨를 나무판에 긋던 도구 곧 각도刻刀의 명칭으로서 ‘쓸>끝’이란 말도 가지고 있다.

陳泰夏, 「契(글)자와 글」, 『한자漢字는 우리의 조상 동이족東夷族이 만들었다』, 明文堂, 서울, 2019년, 158~163쪽

3. 겨레의 글 한글

한글재민체연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연구사업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00년 10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개최한 『겨레의 글 한글』 특별전의 전시 도록에도 이미 잘 제시되어있어 소개한다.

어떤 국어학자는 예전에 쓰임새가 없는 글자들이 사라졌듯이 오늘날은 외국어 한글 표기에서처럼 새로이 쓰임새가 필요한 글자 자모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한다. 영어가 국제어로 부상한 지 오래된 판공에 f, r, v, z 등에 해당하는 자모를 개발해볼 일이라는 것이다. 소재구, 『한글 문화사론』, 『겨레의 글 한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2000년, 172~173쪽

① 글자의 혼동 : 우선, 17세기부터 꼭지 없는 “ㅇ”과 꼭지 있는 “ㅎ”이 주로 붓질의 편의 때문에 완전히 혼동되고 만 것은 명백한 타락이다. 꼭지 없는 이응은 ‘전탁의 후음’ 곧 목청의 떨림 자체를 적는 것이고 꼭지 있는 이응은 ‘전탁의 아음’ 곧 여린입천장 콧소리를 적는 것인 만큼 소릿값이 전연 다르다.

② 한글 낱자의 규정 : 1933년 이래로 한글 맞춤법에서 낱자를 스물 넋자로 규정한 채 머물러 있는 것은 지나치게 완고한 처사다. 당초에는 혼란스러운 표기 생활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그랬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오늘의 상황은 다르다. 옛 글자 가운데 된이응 또는 여린 이응 “ㅎ”은 실상 예나 이제나 독립적인 음소로 여길 수 있을 만큼 빈도 높은 소리를 정확히 적게 해 줄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창제 때부터 오늘 날까지 업신여김을 당해 왔다. 이 글자를 살리면, 놀라며 내지르는 소리 “앗, 약”의 부정확한 시옷과 기역을 한결 정확하게 이 글자로 바꾸어 적을 수 있다. “여뵓, 차렷, 열중쉬엇” 등의 시옷 받침도 마찬가지다. “오앗 으악”의 “으”도 실은 이 글자로 적어야 맞는 것이다.

③ 한글 모아쓰기의 폐해 : 한글을 음절 단위로 모아쓰기가 『훈민정음』 책에서부터 규정되기는 했지만 철칙은 아니었다. “如孔子 | 魯人 사름之類”라는 예문이 그 좋은 본보기다. 여기서 한자 뒤의 “|”나

“ㅅ”처럼 낱자를 따로 적기는 나중에 “비ㅅ발, 헛모로, 하늘ㅅ” 등에서처럼 한글로만 적을 때도 적용되었다. 이와 같이 모아쓰기와 풀어쓰기를 경우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일은 무엇보다 우리네 언어 감각을 위해서 유익했을 것이다. 그러나 역시 한글 맞춤법에서 모아쓰기를 고착시킨 결과 우리네 언어 감각도 음절 단위에 고착되고 말았다.

모아쓰기의 더 큰 폐해는 전산기에 들어 있다. 한글을 입력할 때는 언제나 낱자 단위로 입력한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풀어쓰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52개가 안되는 글쇠로 어떠한 한글 자료도 입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산기 속에서는 이 풀어쓰기로 입력된 한글 낱자의 사슬 가운데 음절 경계를 찾아내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화면이나 종이에는 우리 눈에 익은 음절 단위로 바꾸어 출력하게 된다.

④ 읽기의 어려움 : 글꼴의 용도에 따라가려 써야 하는 미술가들은 본문체로 쓸 만한 한글의 글꼴이 두어 가지밖에 안 되고 수천 가지나 되는 로마자의 글꼴에 비해서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사람들의 취미가 영상 매체로 흐르는 시대 변화에 도무지 대응할 수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다.

⑤ 풀어쓰기 : 모아쓰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안은 초성과 종성을 구별하지 않는 풀어쓰기이다. 한글의 창제 원리로나 음운의 원리로나 초성과 종성은 동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훈민정음 책에서 ‘종성은 초성을 다시 쓴다’고 한 것이다. 김정수, 『한글 문화권의 앞날』, 『겨레의 글 한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2000년, 194~199쪽

21세기는 하나의 지구 문화가 창출할 것이라고 많은 학자는 말한다.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발달로 지구촌은 이미 하나라는 인식을 형성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언어 중 가장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언어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예겐 ‘겨레의 글, 한글’을 ‘지구촌의 글, 세계의 한글’로 도약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근우, 『새천년에 비춰보는 한글의 미래』, 『겨레의 글 한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2000년, 159쪽

4. 『한글재민체』 보급과 새로운 한글정자체의 발굴

2023년 1월에는 원로 중진 서예가 30인, 강복영, 강영애, 광상혁, 구자송, 김상숙, 김선숙, 김응학, 김이중, 김일순, 김정목, 김후분, 박병천, 박정숙, 서복희, 서정선, 서정수, 송하경, 신길자, 유혜선, 이기훈, 이명실, 이성숙, 이송자, 이신영, 장지훈, 장혜자, 정복동, 조종숙, 최미연, 함민숙을 초대하여 『한글재민체 한글서에 초대전 - 개원의료와 보건의료』 특별 초대전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에서 개최하였다. 『한글재민체연구회』에서는 개발된 『한글재민체』의 보급과 새롭고 아름다운 한글 정자체正字體의 지속적 발굴을 위하여 한글재민체서에 대한 2023년 8월에 개최한다. 작품은 애국가 가사 1~4절(후렴구는 마지막 4절에 한 번만) 총 136자를 한글재민체나 관공체官公體 등의 한글 정자체로 70x70cm 크기의 한지에 자유로운 장법章法으로 제작하면 된다. 우수상 수상 작품은 우리나라 최고의 서체 전문기업 (주)윤디자인그룹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 폰트로 탄생시켜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홈페이지에서 2024년 한글날에 무료 디지털 폰트로 배급될 예정이다.

5. 『한글재민체소고韓契在民體小考』의 내용

『한글재민체』는 『대한의원개원칙서』의 격조 높은 붓글씨 서체에 기반을 두고 개발되었다.

이 책에서는 『대한의원개원칙서』를 어느 서사자가 어떠한 서체로 작성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선시대 중요 문서를 서사한 서사관과 사자관 등의 활동에 대하여 문헌 조사를 하여 보았다.

한글 서체에 관하여는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한글 서체를 정음체(훈민정음해례본체)에서 발전한 정자체와 흘림체 셋으로 대별하고, 정자체는 다시 민체정자, 관공체, 궁체정자로 소분小分하였으며, 흘림체는 민체흘림과 궁체흘림으로 소분하였다.

그동안 한글 서예계는 근엄한 정음체(고체, 판본체)와, 아름다운 궁체, 그리고 자유로운 민체를 중심으로 많은 발전을 하였다.

이 책에서는 훈민정음 언해본체 訓民正音 諺解本體를 시작으로 한글

정자체韓契正字體의 발전 양상을 조명하고자 언해류 7 작품, 어서류 7 작품, 유서, 국서, 밀서, 칙서 8 작품, 옥책문, 활기, 제문, 애책문 6 작품 등 총 32 작품을 임시하여 소개한다. 훈민정음 언해본 희방사본을 나무에 복각하고 프린팅 잉크로 한지에 인쇄하여 소개한다.

그리고 새로 개발된 한글재민체를 활용하여 국사國事 관련 작품 7 작품, 의학 관련 작품 9 작품 그리고 사상 관련 작품 3 작품 중 1 작품은 필사하고, 2 작품은 돌에 새기고 한지에 인주로 찍어, 총 19 작품을 소개한다.

또한 정자체 임시작품과 한글재민체 필사작품에 사용하기 위한 인장으로 7 작품을 돌에 모각하였고, 한 작품을 돌에 새겨 총 8 작품을 소개한다.

제2장 서사자書寫者

단아하고 깨끗하며 아름답고 고귀한 대한의원개원칙서 붓글씨의 서사자書寫者는 누구인가?

조선시대에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였던 서사관, 사자관 등에 관하여 여러 문헌을 인용하고 조선시대의 사자관에 해당하는 현재의 전문경력관 제도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1. 서사관書寫官

서사관은 조선시대 왕실의 여러 행사 때에 각종 글씨의 서사를 위해 차출되어 주로 도감都監에 소속되어 서사의 업무를 맡은 관원이었다. 서사관은 크게 전서를 쓰는 전문서사관篆文書寫官과 해서를 쓰는 해서서사관楷書寫官으로 구분된다. 이를 구체적 역할에 따라 좀 더 상세히 나누면 전문서사관에는 어보御寶의 보문寶文을 담당한 보전문서사관寶篆文書寫官, 금보전문서사관金寶篆文書寫官, 옥보전문서사관玉寶篆文書寫官, 옥인전문서사관玉印篆文書寫官 등이 있었고, 교명문의 전서를 쓰는 교명전문서사관敎命篆文書寫官, 표석의 전서를 쓰는 표석전문서사관表石篆文書寫官, 영정 등의 표제를 쓰는 표제서사관標題書寫官 등이 있었다.

해서서사관에는 재궁에 '상上'자를 쓰는 재궁상자서사관梓宮上字書寫官, 명정을 쓰는 명정서사관銘旌書寫官, 각종 책문의 내용을 쓰는 죽책서사관竹冊書寫官, 옥책서사관玉冊書寫官, 금책서사관金冊書寫官, 시책서사관諡冊書寫官, 애책서사관哀冊書寫官이 있었고 교명문의 내용을 쓰는 교명전문서사관敎命文書寫官, 각종 신주를 쓰는 신주서사관神主書寫官 등이 있었다.

옥책玉冊은 왕비를 책봉冊封하거나, 왕과 왕비·대비·왕대비·대왕대비 등에게 존호尊號(덕을 높이 기리는 뜻으로 올리는 칭호), 시호諡號(죽은 뒤에 행적에 따라 올리는 칭호), 휘호徽號(왕비에게 시호와 함께 올리는 칭호) 등을 올릴 때 옥간玉簡에 그 내용을 새겨 첩貼으로 엮어 만든 것이다.

옥책의 내용은 왕비를 책봉할 때는 왕비 책봉의 배경과 자질, 그리고 효성과 우애, 예의와 법도 등의 덕목을 훈계하는 내용을 수록하였고, 존호 및 시호·휘호는 수여하는 칭호의 뜻과 배경·의미 등을 수록하였다.

당시 어책은 어보와 함께 수여되었는데, 왕과 왕비의 책봉 명칭, 추봉 명칭, 존호·시호·휘호 등을 인장에 새긴 것이 어보이고, 이러한 내용의 사연과 의미 등을 풀이한 것이 어책이다. 어책은 신분과 재질에 따라 옥책·죽책·금책으로 구분한다.

옥책을 제작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 의호를 결정하는 관원들이 있다. 여러 대신大臣들과 의정부 동서벽東西壁, 관각당상館閣堂上, 옥

조참판六曹參判 등으로 모두 고급 관료들이다.

둘째로 옥책 제작의 직접적인 참여자들로 제술관製述官과 서사관書寫官, 특히 장인들이다. 의호를 통해 존호, 시호, 휘호 등이 정해지면 이에 대한 주석서註釋書인 옥책문의 작성이 필요하다. 이를 제술관이 작성한다.

서사관은 초도서草圖書와 정본正本을 서사하는 관원이다. 초도서는 임금이 어람하는 문서이고 정본은 옥에 직접 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서사관 또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체로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 봤을 때 정치적인 상황과 집안, 학식과 명망 등이 골고루 갖추어진 정3품 이상의 품계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교명敎命은 왕의 전선傳禪(임금이 살아계실 때 왕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물러나는 것. 내선, 선양, 전수, 전위라고도 함.)이나 왕세자 관례冠禮, 왕비·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王世弟·왕세제빈·왕세손王世孫·왕세손빈·후궁 등을 책봉할 때 내리는 훈유문서訓諭文書이다.

왕비를 책봉할 때는 교명과 책보冊寶(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수여하고, 왕세자 이하를 책봉할 때는 교명과 책인冊印(죽책竹冊과 옥인玉印)을 수여한다.

교명은 옥축玉軸에 비단으로 감싸서 만든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으며 홍색, 황색, 남색, 백색, 흑색 등 오색 비단에 먹으로 해서체楷書體 글자를 필사한 것이다. 교명의 시작 부분에는 용 두 마리가 오르내리는 승강룡昇降龍 사이에 교명敎命이라는 전서체 글자를 직조하여 넣는다. 교명의 서식은 교서와 비슷하나, 교명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라는 국새를 날인하는데, ‘조선왕보朝鮮王寶’를 찍은 것도 있다. 교명의 내용은 그 지위의 존귀함을 강조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훈계하고 깨우쳐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죽책竹冊은 왕세자·왕세자빈·왕세제·왕세제빈·왕세손·왕세손빈을 책봉할 때와 존호 및 시호를 수여할 때 사용된다. 그리고 후궁의 시호를 수여할 때도 죽책을 사용한다. 왕세자 이하를 책봉할 때는 교명과 책인을 수여한다. 죽책의 형태는 죽간竹簡 5~6조각을 책자 형태로 엮어서 해서체楷書體 글자를 새기고 니금泥金을 하고 변철로 고정하여 둥근 고리와 돌쩌귀로 연결한다. 죽책의 앞뒷면에는 비단으로 회장하여

장식한다. 죽책문의 서식은 교서와 비슷하나 문장은 사륙변려문四六駢儷文을 쓴 것이 다르다. 죽책의 내용은 대개 착한 일은 권하고 나쁜 일은 하지 말라고 경계하는 ‘포미권계褒美勸戒’ 내용이다. 이와 같은 성격의 교명과 죽책은 같은 듯, 다른 듯하다. 형태적으로 볼 때는 확연히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하여 명확한 구분을 짓기는 어렵다.

죽책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된다. 제술製述→출초본서사出草本書寫·품정稟定→초도서서사草圖書書寫→정본서사正本書寫→복칠北漆→전금填金→작첩作貼의 과정이다.

전서는 해서나 행서처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체字體는 아니었고 어보나 어진, 금석문의 두전頭篆(비석의 머리 부분에 쓴 전자篆字)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한 특수한 서체였다. 그 중에서도 왕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이 어보이다. 어보의 보문寶文은 반드시 임금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사례는 “선조宣祖의 옥보에는 글자 수가 매우 많은데 어떤 전자篆字로 써서 새길 것인가? 자체를 상세히 써서 들어라.”라고 한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어보의 보문은 승문원이나 교서관校書館의 전자篆字官이 쓰기도 하였으나 도감의 전문서사관이 쓴 사례가 많다. 전문서사관으로는 당대에 전서에 능숙한 고위직을 채용하였으며 이들은 당시 전서의 대표적 명필이기도 하였다. 의궤를 일괄해보면 전문서사관의 대표적 인물로 광해군 대의 허함許涵, 효종 대의 이익엽李益燁,·여이징呂爾徵, 현종 대의 김수항金壽恒, 영조 대의 조현명趙顯命,·유척기俞拓基, 철종 대의 김도희金道喜,·박희수朴晦壽,·홍재룡洪在龍, 고종 대의 김문근金汶根 등이 보인다.

서준,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옥책의 내용과 현황』, 『조선 왕조 어책御冊, 옥책玉冊 5』, 국립고궁박물관, 2017년, 199, 252~254쪽

서준, 『교명과 죽책의 형식과 내용』, 『조선 왕조 어책御冊 - 교명敎命·죽책竹冊·금책金冊』, 국립고궁박물관, 2017년, 426쪽~453쪽

성인근, 『국새와 어보 - 왕권과 왕실의 상징』, 현암사, 서울, 2018년, 193~196쪽
張乙演, 『朝鮮時代 王世子 冊封文書 研究 : 竹冊의 作成節次를 中心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韓國學中央研究院, 城南, 2007년, 17쪽

2. 사자관寫字官

조선 말기 육조六曹의 행정 법규를 수록한 관찬 사료인 『육전조례六典條例』에 따르면, 사자관寫字官은 승문원承文院의 사자관청寫字官廳에 소속되어 사대事大, 교린交隣 문서와 표문表文, 자문咨文, 어첩御牒, 어제御製, 어람서御覽書를 작성하는 일을 담당한 관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자관청이 승문원의 속사屬司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자관의 주 업무는 외교문서 작성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사자관은 왕실과 관련한 다양한 문헌의 서역書役に 투입되었고 때로는 관료 집안을 방문하여 사사로이 글을 쓰기도 하였다. 사자관은 신분상 기술직 중인이었지만 국가의 주요 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승문원承文院의 관원官員으로서 사자寫字나 이문吏文에 특이한 재능이 있는 자, 흥문관弘文館의 관원館員, 여러 도의 교관 및 체아직遞兒職 이외의 자로서 수령守令을 거치지 아니한 자는 사품四品 이상의 품계品階로 올라갈 수 없고, 나이가 이십 미만인 자에게는 동반직東班職을 주지 못한다.

한우근韓祐勳, 이태진李泰鎭, 이성무李成茂, 민현구閔賢九, 권오영權五榮, 『역주譯註 경국대전經國大典 번역편譯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韓國精神文化研究院, 성남시, 1985년, 8쪽

『사자관청등록寫字官廳臚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사자관청등록』은 비록 조선 말기 짧은 기간 작성된 관청 일지日誌이지만 그간 사료의 부재로 인해 사자관의 연구가 부진한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료이다. 국립고궁박물관은 2005년 개관 이래 조선왕조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중요 문헌을 국역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2022년 11월에는 고문헌 국역 총서 제11책으로 국역 사자관청 등록을 펴내었다. 이 책에서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이상백 교수가 해제한 내용이 사자관에 관한 어떠한 문헌보다도 잘 정리되어 있어 저자의 양해하에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이상백, 『해제解題』, 『국역 사자관청등록 國譯 寫字官廳臚錄』, 국립고궁박물관, 서

울, 2022년, 10~32쪽

조선 말기인 1877년(고종 14)에서 1882년(고종 19)까지 6년간 사자관청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된 671개의 기사가 시간 순서에 따라 작성 정서正書한 필사본 업무 일지 사자관청등록은 사자관청의 직제 및 운영과 사자관의 서사書寫활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자관의 직제와 운영

조선시대 사자관의 연원은 이공익李肯翊(1736~1806)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승문원의 조직을 정리하며, 사자관이라는 직책이 조선 초에는 없었고 문신 중에서 글씨를 잘 쓰는 자로 하였으나, 후에 글씨를 잘 쓰는 자가 매우 적어 선조 조부터 사士·서인庶人을 막론 하고 군직軍職의 직함을 주고 사자관으로 삼았는데, 이해룡李海龍, 한호韓濩(1543~1605)가 그 시작이며 숙종 대에 이르러 승문원에 40명 정원이 마련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사대事大:

사대事大는 중국中國과의 외교外交를 말하고 교린交隣이란 일본日本과 여진女眞간의 외교外交를 말한다. 다만 청淸이 중국中國을 정복征服한 이후에는 교린交隣은 대일외교對日外交만을 의미하게 된다.

승문원承文院:

[原] 사대事大·교린交隣에 관한 문서를 관장한다.

사자관寫字官 40인은 글씨 전문가를 뽑아서 임명한다.

규장각奎章閣:

[增] 역대 국왕이 지은 글과 쓴 글씨 및 유언遺言, 그리고 현 국왕의 초상화와 글 및 글씨 등을 관리한다. 사자관寫字官 8인, 화원畫員 10인은 예비인원으로서 대령待令시키되 규장각奎章閣에 소속시킨다.

조두순 외 저, 『역주 대전회통』, 한국법제연구원, 2000년, www.krpia.co.kr

사자寫字 :

승문원承文院은 사대事大·교린문서交隣文書를 관장하여, 특히 사대문서事大文書인 주본奏本, 자문咨文, 표전表箋, 방물장方物狀 및 부분副本들은 선사자善寫者가 서사書寫하여야 하였으므로 당상관堂上官이나 문신文臣이 아니더라도 사자寫字에 특이特異한 재능才能이 있는 자자로 하여금 서사書寫케 하였다.(세조世祖 三九, 一. 八. 庚戌) 이렇듯 서사관書寫官의 임무任務가 막중莫重함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수령守令을 거치지 않더라도 사품이상계四品以上階로 승진陞遷될 수 있는 특전特典을 주었다.

한우근韓祐勳, 이태진李泰鎭, 이성무李成茂, 민현구閔賢九, 권오영權五榮, 『역주譯註 경국대전經國大典 번역편譯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韓國精神文化研究院, 성남시, 1985년, 18쪽

이금익이 사자관을 정의하기 위해 어떠한 사료를 참고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기록과 함께 현존하는 법제서, 중앙 연대기 사료, 사자관청 소속 사자관의 명단을 수록한 『사자관청선생안寫字官廳先生案』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사자관의 직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조선 전기인 1485년(성종 16)에 편찬한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사자관’이라는 명칭은 확인되지 않지만, 승문원 장관獎勸에 ‘사자寫字한 자를 고하高下의 등급을 매기고 이를 전최殿最할 때 참고한다. 부분副本, 주본奏本, 자문咨文, 표表, 전箋, 방물장方物狀 중에서 20통을 빼겨 쓴 자는 1차례 상고上考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히고 있어 사자관 역할을 한 관원의 운영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경국대전』 이후 1491년(성종 22)까지의 법령을 수집, 편찬한 『대전속록大典續錄』에는 ‘사자는 주본, 계본啓本, 표, 전, 부분, 자문 중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매달 50자 이상씩 서사하여 각각 본업을 익히되, 이를 여기는 자는 왕에게 보고하여 조사하고 그중에 태만함이 더욱 심한 자는 파출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성종 대의 『경국대전』 체제에서는 승문원에 사자관이라는 직책은 없었으나 외교문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일을 전담하는 관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국대전 이후 이들의 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 수

양 의무에 대한 법 체제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사자관이라는 명칭은 대전속록 시행 후 1542년(중종 37)까지의 법령을 수집, 편찬한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에서 다시 확인된다. 『대전후속록』의 병전兵典 『체아직遞兒職』에는 승문원에 사자관 2명을 둔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상당히 간략하지만 법제서에 ‘사자관’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잡과방목雜科榜目』(古4652.5-16) 중 제3책에 수록된 『사자관청선생안』에는 중종 대에 활동했던 인물인 유이손柳耳孫(생몰년生歿年 미상)부터 사자관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 사자관청의 설치 시기를 추정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실록에서 사자관에 대한 기사가 중종 대부터 확인되는 점은 사자관의 운영 시기를 더욱 확실하게 한다. 즉, 사자관은 중종 대부터 관직으로서 자리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자관은 영조대 1746년(영조 22)에 편찬한 『속대전』에서 완전히 제도적으로 갖춰진 체제가 확인된다. 『속대전』에는 승문원의 사자관을 본업인本業人으로 40명 차출하며, 2달마다 승문원 제조提調가 고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를 빈자리가 생기는 대로 승진시켜 보충하며, 체아직遞兒職 군직으로 정3품 상호군上護軍 1자리, 종3품 대호군大護軍 1자리, 종4품 부호군副護軍 1자리, 종5품 부사직副司直 1자리, 종6품 부사과副司果 1자리까지, 총 5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속대전』 이후 1785년(정조 9)에 편찬한 『대전통편大典通編』에는 규장각이 새로 창설되어 사자관 제8명을 차비대령差備待令으로 소속시키면서 조선 후기 사자관은 승문원 40명, 규장각 8명이며 체아직遞兒職 5자리로 운영되었음이 확인된다. 이후 사자관의 직제와 운영은 1867년(고종 4)의 육전조례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육전조례』는 관청의 행정 처리를 위한 법규를 수록한 법제서로 사자관의 직제를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자관은 실관實官 40명이 전담하였고 사자관 중 높은 위치에 훈장訓長 1인이 45개월간 직을 담당하였다. 정본, 부분, 대자大字 3개의 글씨체로 시험을 실시하여 뛰어난 자는 녹관祿官 13자리에 임명하였고 훈장은 녹관으로 사과司果 1자리에 올랐다. 녹관은 상호군, 대호군, 부호군, 부사직, 부사

과, 사과까지 14자리가 있어서 『속대전』 체계의 5자리에서 9자리가 늘어난 것이 확인된다. 사자관 중 중국에 가는 사행에는 사계절 삭취재朔取才에 따라 시표관侍表官과 정사관幹正使軍官이 1명씩 선발되었고, 일본에 가는 통신사행에는 취재取才 또는 임의로 국서관國書官이 차출되었다. 외도에는 황해, 평안도의 감영과 병영,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함경도의 감영, 통영에 실관 40명 중에서, 충청도의 병영과 수영, 경상도의 좌, 북병영은 무료관無料官 20명을 경력에 따라 윤회輪回하여 차출하여 보냈다. 경상 우병영, 전라 병영, 남병영은 모두 별문서 자리로, 황해수영, 경상좌수영은 모두 관직 자리로 차출하여 보냈다. 차비대령은 수가 정해지지 않았고 규장각에 속했다.

『사자관청등록』은 1877년(고종 14)의 기록이기 때문에 육전조례에서 확인되는 직제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사자관 중에는 훈장이 높은 위치에 있었고 시험으로 녹관이 선발되었다. 사자관은 승문원에서 외교문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사행을 갔으며 지방에도 파견되어 관아의 서사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법제사에서 확인되는 사자관의 직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조선시대 사자관 운영 현황

	성종대	중종대	숙종대	영조대	정조대	고종대
법제서	경국대전 (1485년)	대전속록 (1491년)	대전후속록 (1542년)	편찬법전 속대전 (1746년) 확인되지 않음	대전통편 (1785년)	육전조례 (1867년)
명칭	사자	사자관	사자청 40명			
관칭	승문원	사자청	규장각 8명 - 수 부정			
정원	미상	미상	규장각 8명 - 수 부정			
녹관	미상	체아직 2	미상	체아직 5	14	

사자관은 외교문서에서 왕실 문헌까지 다양한 기록물 작성에 참여하였는데 승문원에 소속되었던 만큼 외교문서 작성이 가장 중요한 업무였다. 사대에는 외교문서 작성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기술 숙련을 통해

사행에 참여하여 착오가 있는 문서를 발견하면 흠결이 없도록 고치는 업무도 포함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중 선조 대 기사에는 사자관을 두는 목적이 오로지 사대事大였음이 확인되며, 광해군 대에는 사자관이 찬집청撰集廳에 파견되었는데 사대문서의 일이 있을 때 모두 승문원에 가서 일하여 실록 편찬 업무가 진행되지 못한 사실도 확인된다. 즉, 승문원 소속의 사자관은 외교 문서 작성을 가장 시급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겸하더라도 우선 순위가 분명해 다른 서적 편찬 업무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숙종 대에 사자관 정원이 40명으로 고정되는 것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연려실기술』에서는 선조 대부터 사자관을 사인士人和 서인庶人을 가리지 않고 등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자관은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전반까지는 양반 서류庶流나 그에 준하는 신분의 가계에서 진출하였고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기술직 중인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의 『잡과방목雜科榜目』(古4652.5-16)에 수록된 『사자관청선생안』의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 사자관청선생안에는 각 사자관의 명단 아래 역임한 관직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 수록 인원에 비해서 수가 적지만 종6품 이상 참상관參上官의 관직이 확인된다.

사자관은 정2품 판서부터 종6품 현감까지 참상관 이상인 자도 역임하였으나 그 수가 점점 줄어 영조 대 이후부터는 본업인으로 하위직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사자관청선생안』에 따르면 정2품 판서判書에는 한인급韓仁及(1583~1644년), 정2품 참찬參贊에는 한준韓準(1542~1601년), 종2품 제학提學에는 오준吳竣(1587~1666년), 정3품, 종3품 부사府使에는 양만고楊萬古(1574~1655년), 이충겸李忠謙(인조대 활동), 정3품 목사牧使에는 김행金行(1532~?), 김응청金應淸(생몰년 미상), 이언관李彦寬(생몰년 미상), 종4품 군수郡守 한호韓濩(1543~1605년), 장인충張仁忠(미상), 장응선張應善(인조대 활동), 정침鄭琛(인조대 활동), 종5품 현령縣令은 이복장李福長(선조대 활동), 신여탁申汝擢(선조대 활동), 안선민安善民(생몰년 미상), 박승현朴崇賢(인조대 활동), 이익장李益章(인조대 활동), 종6품 현감縣監은 박자휘朴子翬(생몰년 미상), 윤경국尹敬國(선조대 활동), 이진응李震膺(인조대 활동), 이인

민李仁民(인조대 활동), 조수동趙壽棟(숙종대 활동), 이유화李惟和(숙종대 활동), 김수언金壽彦(생몰년 미상), 김국표金國杓(영조대 활동)가 확인된다. 이 중에서 정3품 이상 직책을 역임한 인물은 인조 대까지 활동했던 인물로 보이며, 종6품 이상 직책을 역임한 사자관은 영조 대에 활동한 김국표가 마지막으로 확인된다. 이후 사자관 명단에는 참서관 이상 관직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름 아래에는 사자관을 길이 전담하게 한다는 ‘영부永付’라는 명칭이 새롭게 등장하여 명단의 끝까지 계속된다.

요컨대, 중종 대에서 영조 대까지의 사자관 중에는 정2품 판서부터 종6품 현감까지 참서관 이상 관직을 역임한 이들이 있었는데 그 수가 속종, 영조 대에 이룰수록 점차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참서관 이상 관직을 역임한 이들 전체가 양반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이공익의 서술처럼 사자관에는 사인士인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조 대부터 사자관만 전담한 인물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관련 사료가 확인되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속대전』 체제가 마련되면서 사자관을 ‘본업인本業人’으로 차출한다는 규정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크다.

1882년 5월 23일의 청회에 참석한 인물을 대상으로 직책의 위계를 살펴 보면 사자관청에는 수좌首座, 수관首官, 훈장訓長, 훈장예차訓長預差, 유사관有司官, 장무관掌務官, 우위右位, 하위下位의 순으로 직급이 구성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 우위와 하위는 관직 이름이기보다는 사자관청에서 일반 사자관의 등급을 나눈 정도로 보인다. 즉, 장무관은 사자관청에서 하위, 우위 위에 있는 중간 간부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직책으로 보인다.

사자관의 직제

사자관청에서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청회가 개최되었는데 청회에는 좌목座目, 즉 참석자를 직위 순으로 기록한 내역이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사자관청의 사자관은 수좌首座, 수관首官, 훈장訓長, 예차훈장預差訓長, 유사관有司官, 장무관掌務官, 우위右位, 하위下位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수관, 유사관, 장무관은 주요 직책인 삼임관三任官이며 등록에서 수관 훈장 이기흡李基洽, 유사관 훈장

이공현李兢鉉과 같은 직책이 다수 확인되므로 삼임관 자리는 차출되면서 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차훈장은 훈장이 사임하면 곧바로 임명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다. 등록에서는 수관의 선발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수관은 여섯 달 임기를 마치면 후보자를 수망首望, 부망副望, 말망末望으로 갖춰 제조에게 보고하여 낙점을 받아 선발되었다. 수관은 임기를 채우지 않더라도 병환 등 신상의 일로 제조에게 청하여 사임을 하기도 하였고, 여섯 달이 넘도록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삼임관 중 수관은 제조가 임명하였으나 유사관과 장무관의 인사권은 수관에게 있었고 청회를 거쳐 임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자관청 생도방生徒房 입속入屬

생도방에는 사자관이 되기 전 수련 단계에 있었던 동몽童蒙이 있었다. 동몽은 학생學生으로도 불리었는데 재주에 성취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자관 중 이습肄習(정식 관원으로 임명되지 않고 일을 익히는 임시 벼슬아치)이 되었다. 등록에는 사자관청 생도방에 동몽으로 입속하는 과정인 완전完薦에 관한 기사가 확인된다. 먼저 입속을 원하는 자가 모이면 수관은 완전 일자를 통보하고 완전을 위한 청회가 개최되었다. 완전 과정은 상세히 알 수는 없으나 등록의 완전 결과, 인명 아래 ‘초순무결初巡無結’, ‘삼순이결三巡二結’과 같은 글이 확인되어 사자관청의 완전은 사역원의 역관 생도방 입속 과정과 유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역원 역관 입속 과정은 『통문관지通文館志』의 『완전完薦』에서 확인되는데 입속을 원하는 자는 사조단자四祖單子和 보거단자保舉單子를 제출하고 녹관이 모여서 단자單子를 보고 가부를 결정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녹관들이 단자를 ‘삼순三巡’ 즉, 3번 이하로 돌려보았을 때 종이를 꼬아서 거부를 표현하는 ‘결結’이 두 번 이하 나온 자들은 시험을 치르게 되고, 시험에도 합격하면 최종 입속되었다. 이 완전절차는 역관의 입속에 해당하지만 등록에 완전이라는 용어와 대상자 아래 ‘순巡’과 ‘결結’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역관과 유사한 절차를 거쳐 동몽에 입속했을 가능성이 크다. 사자관은 『속대전』 체제부터 40명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대전통편』 체제부터 승문원 40명, 규장각 8명으로 자리가 정해졌다. 그러나 등록에 따르면 사자관과 생도[官生]를 합한 인원이 예전에는 60명이었으나 등록 작성 당시 8, 90명

에 이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우위가 20여 명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15명이라서 7명을 더 선발한다는 기사도 확인된다. 등록의 표제가 「본원 등록」이므로 등록에서 언급한 사자관은 승문원 소속의 사자관일 가능성이 크다. 즉, 그렇다면 과거에는 사자관 40명, 생도 20명의 자리로 직제를 이루고 있었으나 등록이 작성되었을 당시 관생의 수가 비대해지고 직제의 우위, 하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수도 유동적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사자관의 임명과 평가

등록에서는 사자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거치게 되는 과정과 지속적인 평가 상황을 보여준다. 사자관에 임명되어 말단인 조사曹司가 되면 면신례免新禮인 지면례知面禮 과정을 거친 후 또다시 허참례許參禮를 거쳐 포상받고 임용되었다. 사자관이 된 자는 청에서 업무를 빠르게 익히기 위해서 주도倣度라는 과정을 통해서 50일 동안 쉬지 않고 번을 서도록 하였다. 사자관은 녹취재祿取才, 삭취재朔取才로 평가받았다. 특히, 삭취재 시행과 관련해서는 1877년 2월 10일 기사가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당시 승문원 제조가 본원 사자관의 필체가 전혀 모양을 이루지 못하여 『황정경黃庭經』으로 매달 시제에 응하게 하도록 지시가 있었다. 『황정경』으로 삭취재를 시행하는 것은 1879년까지 2년 동안 시행되었다. 등록에서 사자관의 삭취재로 황정경을 익히도록 한 것은 당시 사자관이 왕희지王羲之(303~361)의 필체를 익히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등록의 한 부분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황정경은 왕희지가 해서楷書로 쓴 본의 모본과 판각본이 다수 제작되었고 사자관청에서는 이 서첩을 익혀 매달 삭취재에 응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자관의 조직 문화

사자관은 다른 기술직 종인과 마찬가지로 집안 대대로 관직을 이어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사자관청 내에 오랫동안 자리 잡은 문화로 집안사람이 관청에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혜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자관의 서사 활동

사자관청등록은 사자관 본연의 업무인 서사 활동을 상세히 보여준다.

사자관청이 승문원의 속사屬司였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사자관에게 외교문서 작성은 가장 중요한 업무였다. 그리고 사자관은 왕실 문헌 등 국가 주요 기록물의 서사 작업에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였다.

사자관의 외교문서 작성

등록은 사자관의 외교문서 작성 활동을 상세히 보여준다. 등록에서 확인되는 외교문서 작성과 관련한 기사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사자관청등록」수록 외교문서 작성 기사 목록

연도	문서명(작성시기)
1877	월식자月食咨(1.25~26), 표민자漂民咨(1.26~30), 선통칭사자先通稱謝咨(4.18~19), 절행문서節行文書(10.10~27)
1878	고부사문서告訃使文書(6.13~19), 절행문서節行文書(10.10~27)
1879	절행문서節行文書(10.2~11.7), 성경예부회자盛京禮部回咨(10.4)
1880	표민자漂民咨(3.22~23), 어채자漁採咨(5.23~25), 절행문서節行文書(10.10~11.7), 성경예부회자盛京禮部回咨(10.22), 선통칭사자先通稱謝咨(11.6), 준청문서准請文書(11.16~17)
1881	성경예부회자盛京禮部回咨(3.5), 북경예부회자北京禮部回咨(4.11), 사행문서使行文書(6.10~16), 북경예부회자北京禮部回咨(6.28), 청력자請曆咨(8.19), 사행문서使行文書(10.4)
1882	북경예부회자北京禮部咨(4.24), 총리각국사무아문자總理各國事務衙門咨(7.14), 사행문서使行文書(7.19), 총리각국사무아문자總理各國事務衙門咨(7.25), 예부자禮部咨(8.19), 북양통상대신아문자北洋通商大臣衙門咨(9.27), 사행문서使行文書(10.15~11.6), 진주문서陳奏文書(11.7), 총리각국사무아문자總理各國事務衙門咨(12.17), 북양통상대신아문자北洋通商大臣衙門咨(12.19)

등록의 외교문서 작성 관련 기사는 1882년(고종 19)에 가장 많다. 1881년까지는 주로 대청 외교문서가 대부분이었으나 1882년부터는 종류가 다양하게 확인된다. 이는 1882년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일본군 주둔을 허가하는 제물포조약을 일제와 체결하는 등 당시 외세와의 관계가 급변하였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등록에서 각국의 사신이 와서 서계書契, 국서國書, 조회문照會文, 자문咨文의 발급이 수시로 있어 사자관이 매일 번을 서도록 한 것

으로 보아 당시 외교문서 작성이 수시로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청 사대문서 업무는 일반적으로 예문관藝文館에서 사대문서를 기안하는 제술製述단계, 사자관이 형식에 따라 문서를 작성하고 오류를 잡는 선사繕寫단계, 선사를 마친 초본인 흑초를 검토하는 흑초사대黑草查對 단계, 문서를 정서하면서 오류를 검토하는 필사畢寫단계, 외교문서에 어보御寶와 어압御押을 남기는 안보安寶단계, 완성된 사대문서를 보관함에 봉안하는 봉과封裹 단계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사자관은 외교문서 생산 과정 중 선사부터 필사까지 업무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등록에서는 특히 매년 10월에 수록된 사행 문서 작성 관련 기사에서 업무 절차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시기에 따라서 문서 작성 절차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모든 절차가 수록된 1880년 10월의 문서 작성 사례를 통해서 사자관의 업무를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사자관은 문서분방文書分榜 - 문서회동文書會同 - 흑초사대黑草查對 - 정서사대正書查對 - 의정부사대議政府查對 - 방물봉과方物封裹 - 승정원사대承政院查對 - 모화관사대慕華館查對의 순으로 문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행위 자체만 기록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동은 확인하기 힘들다. 모화관의 사대 이후 사행이 출발하면 황주黃州, 평양平壤, 의주義州에서 세 차례 사대를 진행하는 이를 위해서 사자관은 시표관과 정사 군관으로 차출되어 문서 수정에 관여하였다. 사자관청에는 사행을 나서는 이들을 위해 전별餞別 행사를 베풀었다.

사자관의 왕실 기록물 작성 사자관은 규장각에도 소속되어 있었듯이 국가의 중요 기록물 작성에 동원되었다. 다만 등록에는 승문원 소속 사자관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어서 규장각의 기록물 작성 업무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등록에서 확인되는 사자관이 작성한 기록물은 표3과 같다.

표3. 『사자관청등록』수록 사자관 참여 기록물 목록

	작성시기	작성대상	작성장소
1	1877.1.20.	삼공선생안三公先生案	의정부議政府
2	1877.7.27.	발부총록發付摠錄	승정원承政院
3	1877.8.25.	책제목록冊題目	통장統統長廳
4	1877.11.22.	친상전문親上箋文	예문관藝文館
5	1877.12.23.	친상전문親上箋文	예문관藝文館
6	1878.1.19.	친상전문親上箋文	예문관藝文館
7	1878.2.4.	왕비세보王妃世譜	종친부宗親府
8	1878.3.17.	진선도進饌圖	별군직청의궤소別軍職廳儀軌所
9	1878.4.21.	언서책제목록諺書冊題目	통장統統長廳
10	1878.8.8.	승경도陸卿圖	미상
11	1878.9.25.	삼반고三班考	이조서리문아가吏曹書吏文雅家
12	1878.10.24.	어명천御命牒, 예단지禮單子	정원서리홍가가政院書吏洪哥家
13	1879.2.23.	어제실병풍御齋室屏風	대조太廟
14	1879.9.6.~1880.11.16.	책역소 간행 책	세자시강원책역소世子侍講院冊役所
15	1879.12.3.	전문箋文	외방양읍외方兩邑
16	1880.5.16.	통감책제목록通鑑冊題目	홍문관弘文館
17	1880.6.22.	상양문초도서上樑文草圖書	별궁別宮
18	1880.9.16.	열성조계강책列聖朝繼講冊	옥당玉堂
19	1881.6.21.	칙급예단勅給禮單	공사청公事廳
20	1881.8.14.	함녕전상량문초도서咸寧殿上樑文草圖書	세자빈궁世子嬪宮
21	1881.8.20.	열성조자손목례聖朝子孫錄	돈녕부敦寧府
22	1882.3.26.	어첩御帖, 명첩名帖	승정원承政院
23	1882.3.29.	홍패첩지紅牌帖紙	승정원承政院
24	1882.4.9.	어첩御帖, 명첩名帖, 수중홀기手中笏記	승정원承政院
25	1882.5.15.	등영록登瀛錄	홍문관弘文館
26	1882.6.4.	강목제목綱目題目	홍문관弘文館
27	1882.10.16.	국조방목國朝榜目	홍문관弘文館

등록에는 사자관이 참여한 기록물 27건이 확인된다. 육전조례에서 따르면 사자관이 어첩, 어제, 어람서의 작성을 담당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 등록에서 확인되는 사자관의 서사 활동은 『왕비세보王妃世譜』, 『열성조자손록列聖朝子孫錄』과 같은 왕실 족보, 의궤의 진찬도進饌圖, 역대 왕의 경연에서 진강進講했던 서적과 기간을 기록한 『열성조계강책列聖朝繼講冊』등 왕실 관련 기록물뿐만 아니라, 흥문관의 관원을 임명하기 위해 인적 사항을 기록한 『등영록登瀛錄』,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들의 명단인 『국조방목國朝榜目』, 의정부의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의 명단인 『삼공선생안三公先生案』과 같은 관청 기록물, 국왕 등 왕실에 올리는 문서인 전문箋文, 문과 급제자에게 내린 홍패紅牌와 첩지帖紙 같은 문서, 책 제목, 병풍, 상량문의 초도서에 이르기까지 왕실과 국가 주도 사업에 다양하게 참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등록에는 사자관이 서역을 위해 방문한 곳도 확인되는데 왕실 관련 공간, 중앙 관청을 비롯하여 이조 서리, 승정원 서리의 집까지 방문하여 작업하였다.

등록에서 특히 주목되는 사자관의 왕실 기록물 서사 활동은 시강원 책역소侍講院冊役所의 서적 간역사업 참여와 관련한 기사들이다. 장서각에는 『시강원책역소일기侍講院冊役所日記(K2-2780)』가 현존하고 있다. 책역소는 1879년(고종 16) 9월 3일 왕명에 의해 감동관監董官이 임명되고, 9월 6일 사복시司僕寺에 책역소가 설치되고 1880년 11월 16일까지 업무가 진행되었다. 즉 책역소의 서적 간행 시기와 등록의 작성 시기가 중복되기 때문에 당시 사자관의 활동을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책역소에서는 당시 세자인 순종의 서연書筵에 쓰이는 강의 교재를 출판하였는데 책역소 서역에 투입된 사자관은 총 19명이 확인된다.

책역소의 서적 출판에 다수의 사자관이 투입된 이유는 새로 간행하는 책의 판하本板下本이나 제목을 쓰는 일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세자의 서연을 위해 서적의 다수에 이함頤頷과 현토懸吐 작업을 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책역소에서 작업한 책은 을해년(간행년 미상)에 간행한 사서삼경인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주역』과 『효경』, 『소학』, 『예기』, 『춘추』, 『통감강목』, 『천자문』까지 4,280책과, 새로 간행한 대.소자 『효경』, 『소학』, 『통감』, 『사략』, 『속사략』,

『동몽선습』, 『전운옥편』까지 865책, 총 5,145책이다. 이때 『사서삼경』, 『효경』, 『소학』은 이함과 현토를, 『예기』, 『춘추강목』, 『통감』, 『사략』, 『속사략』에는 현토를 하였으며, 세자 예람건축覽件은 청색으로, 강관講官 배포 건 및 그 밖의 건은 흑색으로 현토하였다. 이 중에서 이함은 책역소에서 전라감영에 이함에 사용되는 죽청지를 들이도록 명한 기록과 당시 작업의 결과물로 보이는 ‘을해신간乙亥新刊 춘방장판春坊藏板’ 『소학제가집주小學諸家集註』의 본문에는 현토, 본문의 아래 여백인 서각書脚에는 종이를 부착한 주석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책의 하단에 부착한 주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등록의 책역소 작업 관련 기록은 1879년(고종 16) 9월 5일 연일 사자관을 시강원侍講院에 들어오도록 통지하였다는 처음 기록부터 1880년 11월 25일 서역 종료 후 참여 사자관을 외직外職으로 조용調用하는 등의 사자관청의 업무 처리까지가 확인된다. 등록에는 사자관의 책역소 작업이 상세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1880년 11월 25일 현토와 이함의 서역을 위해서 모두 출외出外하였다는 것과 1879년부터 1880년까지 시강원에서 백목白木, 부채扇子, 『과화존신過化存神』 등 지속적인 선물 하사 내역 등이 확인된다. 등록에는 비록 책역소의 작업 내역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사자관청의 업무를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그 이유는 책역소에 상당수의 사자관이 차출되어 업무에 투입되었지만 사자관청에서는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다른 중요 업무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등록에는 『통천록通薦錄』의 등서로 시강원 서역에 불참한다는 기록과 같이 업무 중복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기도 하였고 책역소 업무 기간에도 외교문서 작성, 다른 관청의 서역 업무, 삭취재, 녹취재 시행 등과 같은 주요 업무를 계속 수행한 기사들이 확인된다.

『經國大典』, 『大典續錄』, 『大典後續錄』, 『續大典』, 『大典通編』, 『六典條例』, 『練藜室記述』, 『承政院日記』, 『鮮王朝實錄』, 『雜科榜目』,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청구기호: 古4652.5-16-v.3), 1870. 以後

『寫字官聽臚錄』, 국립고궁박물관, 유물번호: 고궁3817

『侍講院冊役所日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청구기호: K2-2780), 1880.

『小學諸家集註』,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청구기호: K3-46), 1815.

김경록, 『조선시대 사대문서의 생산과 전달체계』, 『한국사연구』 134, 한국사연구회, 2006.

김두헌, 『자료 『寫字廳先生案』의 편찬과 제시』, 『대동사학』 3, 대동사학회, 2004.
 김두헌, 『조선시대 기술직 중인 신분 연구』, 경인문화사, 2013.
 박용만, 『弘齋全書』 편찬과정의 寫字官 성격과 역할, 장서각 45, 한국학중앙연구원, 202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국역 통문관지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옥영정, 『시강원의 서적편찬과 간행기록 고찰』, 『서지학연구』 18, 한국서지학회, 1999.
 이신영, 『王羲之 書藝에 關한 批評 研究』,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장서각, 『장서각소장 고문서대관 3』,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이상백, 『해제解題』, 『국역國譯 사자관청등록寫字官廳臚錄』, 국립고궁박물관, 서울, 2022년, 10~32쪽

3. 필경사筆耕士·사수寫手

① 글씨를 베껴 쓰는 사람.
 ② 조선 시대에, 과장科場에서 시권試券의 글씨를 대신 써 주던 사람.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 검색
 예능프로그램 유키즈온더블럭에서는 2022년 6월 17일 (서예)전문경력관을 필경사筆耕士라는 호칭으로 소개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 필경筆耕은 붓으로 농사를 대신한다는 뜻으로, 직업으로 글이나 글씨를 씌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필경사筆耕士란 글씨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고전종합DB에서 필경사를 검색하여 보면 『명재유고(제26권 / 서書)』에서 필경사가 사수寫手라는 용어로 등장한다.

유상기에게 보낸 6월 12일
 요사이 날씨가 몹시 더운데 건강은 어떠하십니까? 그리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지난번 인편이 왔을 때 병 때문에 편지를 쓰지 못하고, 아이들더러 좌상에게 재차 감사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했습니다. (중략中略)
 책을 간행하는 일은 지금 이미 정해졌고, 초본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

전히 갖추어져 있으며, 또 이미 깨끗이 필사했으니, 교정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 역사를 언제쯤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큰 역사가 빨리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어찌 사문斯文의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본은 아직 모두 산정刪定하지 않아서 원래 간행을 서둘러서는 안 되었고, 만약 추후에 간행할 수 있게 된다면 앞뒤로 간행된 두 본이 또한 참고해서 보기에 좋을 것이니,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이 뜻으로 좌상에게 답을 하였습니다. 다만 책을 간행하는 일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교정입니다. 그대의 노쇠한 정력으로 혼자서 담당하기 어려울 것이니 여러 종제들에게 함께 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나 또한 그중 몇 권을 나누어 받아 교정해서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일찍이 이른바 송안宋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회천懷川 송시열宋時烈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천이 아니고 바로 구봉龜峯 송익필宋翼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 또 이런 종류의 의문 난 곳이 있거든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좌상이 그대에게 답한 편지에 서문 쓰는 것을 사양했기에 지난번 답서에서 사양하지 말고 써 달라고 청했습니다. 지난번에 등본臚本을 보니 매우 정밀하던데 이 본을 가지고 판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판각할 본을 다시 등사할 계획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밀한 필경사筆耕士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자관寫字官이 가장 좋지만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책을 간행하는 일이 정해진 뒤에 소식을 알지 못해 답답합니다.

© 한국고전번역원 | 홍기은 (역) | 2008

[與兪相基 六月十二日]

[DCI]ITKC_MO_0400A_0280_010_0560_2003_A136_XML DCI복사
 至於刊事。今已定矣。初本首尾完具。且已淨寫。校正之外。更無難事。未知始役在何間耶。大役亟濟。豈非斯文之幸也。此中本。尙有刪定之猶未盡者。元不當汲汲。倘或追後可得入梓。則前後兩本。亦好參看。有何妨也。昨亦以此意。復于左相矣。但刊役最難者。校正也。君之衰境精力。恐難獨辦。令從弟諸賢。可以往同否。此中亦可以分卷校上矣。且曾見以所謂宋按者。疑爲懷川。非也。乃指龜峯也。如復有此等疑晦處。則一一示及如何。左相答

君之書。辭序文。故昨於復書中。請其勿辭而爲之矣。前見謄本甚精。未知此本可付板否。或欲更謄付板之本耶。若然則寫手之精者甚難。京中寫字官最好。而得之未易。未知何以爲計。刊事已定之後。未知消息。爲鬱。六月十二日。

윤중尹拯, 「유상기에게 보냄, 6월 12일」, 『명재유고明齋遺稿, 제26권, 서書』, 1732년, 한국고전종합DB

그리고 사수寫手라는 용어는 정암집貞菴集에서도 확인이 된다.

1) 가문 의식과 선조先祖의 현창顯彰

앞서 살폈듯이 『정암집貞菴集』에는 여러 양식의 시문이 수록되어 있지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편지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문집과 달리 일가친척에게 보낸 편지가 앞에, 절친한 벗 김신겸金信謙이나 평소 깎듯이 모셨던 외종형 이재李縉, 그리고 학문적인 의론을 주고받았던 임성주任聖周에게 보낸 편지가 뒤에 배치되어 있다. 이는 민우수閔愚洙가 일가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중략中略)

1734년 처음 과장에 들어가는 아들 백첨과 백겸에게 차분히 임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고, 1738년에 과거가 임박하여 긴장한 아들들에게, 공부가지겨우면 하던 공부를 그만두고 책 한 권을 천천히 읽도록 권하기도 하고, 일과를 정해서 힘써 공부하도록 권면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아들들이 과거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대필해 주는 사수寫手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를 꾸짖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렇듯 민우수에게 자손의 과거 급제가 제일 중요하기는 하였지만, 과거를 능사로 여기는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아들들의 학문적 깊이와 특장을 모두 파악하여 적절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중략中略)

한편, 민우수는 일가친지와 제사나 못자리 등 가문의 일을 의논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하였다. (중략中略)

그러는 중에도 과거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 것과 사수寫手를 쓰지 말 것을 충고하였는데, 과거와 향사享祀가 겹쳤을 때는 형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였다. 민우수는 졸하기 전까지 장조카 백분과 지속적으로 편지로 집안일을 의논하였던바, 그만큼 민우수에게 가문의 의미는 깊었던 것이라 하겠다.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김은정

조광조趙光祖, 「가문 의식과 선조先祖의 현창顯彰」, 『정암집貞菴集』, 1892년, 한국고전종합DB

4. 전문경력관專門經歷官

조선시대의 사자관제도도 현재 전문경력관 제도로 이어지고 있다.

전문경력관 제도의 법적 근거, 지위, 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경력관은 5급 이상 행정부소속 국가공무원의 임명장과 서훈 등을 손글씨로 쓰는 업무를 관장한다. 현행법상 전문경력관 제도는 인사혁신처 예규인 「전문경력관 규정」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다. 직종은 일반직 공무원이나 일반직에 적용되는 계급 구분(1~9급)과 직렬구분(행정, 전산, 공업 등)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으로서 담당 직무의 성격·난이도·속련도 등에 따라 가·나·다군의 직위군으로 구분하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4조 제2항, 전문경력관 규정(제1조 등))

② 현행 전문경력관 제도의 연혁은 조선시대 사자관寫字官 제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직종으로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62년에 도입되었다. 사자관은 승문원, 규장각에 소속되어 외교문서, 자문畵文, 어첩, 어제 등의 문서를 정서正書하던 관원이다.

③ 전문경력관 복무 및 인사관리상의 특례

직무 난이도와 보수 수준을 고려하여 가군은 5급 이상 나·다군은 6급 이하로 관리하고 정년·휴직, 명예퇴직 등 신분보장은 다른 일반직과 동일하나 승진·전보·전직·파견 등은 직위 특성상 제한되고 있다.

④ 전문경력관 채용요건의 근거와 시험방법

경력경쟁 채용 중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자격증)·제3호(경력)·7호(지방-국가직)·10호(학위)·12호(연고지) 등의 요건 충족으로 채용한다. 특히 자격증(2호)은 직무 성격에 따라 직위별로 소속 장관이 정하고 경력 또는 학위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전문경력관 규정」상의 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시험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또는 필기·실기)으로 하고 필기시험과목은 소속장관이 직무의 내용 및 성격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다.

⑤ 현황

현재 전문경력관은 인사혁신처(임용장 담당)에 2명(가군 1명, 나군 1명, 이 중 1명은 별정직에서 전문경력관으로 전환했고, 1명은 신규 채용), 행정안전부(서훈 담당)에 2명(가군 1명, 나군 1명)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다.

⑥ 제도적 개선책

전문경력관의 연혁적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법령에 서예 전문경력관이라는 명칭을 명문화하고 채용 인원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예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경력관을 필경사라고 잘못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부적절한 호칭이다.

이석연, 『전문경력관專門經歷官』, 개인 교신, 2022. 9. 28.

인사혁신처는 2023년 2월 17일 대통령 명의 임명장 작성, 대통령 직인 국새 날인, 임명장 작성 기록 대장 관리시스템 운용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문경력관 가군을 모집하는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공고를 냈다. 응시 요건은 아래와 같다.

- 서예 관련 직무 분야에서 8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
- 서예 관련 분야 박사 학위
- 서예 관련 석사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학사 취득의 경우 4년 이상 경력)

조선일보, 2023. 2. 22.

5.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 서사자書寫者

『대한의원개원칙서』의 붓글씨 서체를 기반으로 개발된 『한글재민체』를 잘 아는 이필숙 박사가 『한글재민체』와 똑같은 서체의 고자료가 인사동 화봉문고에서 운영하는 제81회 화봉현장경매에 올라왔다고 전화하였다. 이필숙, 개인 교신, 2022. 3. 19. 『서순행일기』 첫 장의 필사 서체가 『대한의원개원칙서』의 서체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서순행일기西巡幸日記』, 제81회 화봉현장경매, 서울, 2022. 3. 16~19. 14쪽 그러나 120가지 서체로 천자문千字文 작품을 발표한 전정우는 『대한의원개원칙서』와 『서순행일기』는 필체로 보아 서사자가 같지 않다고 단언하였고, 전정우, 개인 교신, 2023. 2. 16., 『대한의원개원칙서』는 대단히 수준이 높은 달필達

筆인데 비하여 『서순행일기』는 개원칙서에 못 미치는 필체라 하였다. 전정우, 개인 교신, 2023. 2. 20.

『대한의원개원칙서』의 필사자가 누구일까. 『대한의원개원칙서』는 황제가 내린 칙서이기에 개인 필사자에게 맡기기보다, 공식적인 문서로 처리해야 하므로 사자관급에 있던 인물이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또 하나 20세기 초에도 사자관들은 그대로 활동하고 있었다. 20세기 초 의궤나 등록에 필사한 사자관들의 이름이 나온다. 예컨대, 1906년에 제작된 『왕세자가례도감의궤王世子嘉禮都監儀軌』(규장각 소장)에 사자관으로 참여한 김보영金輔榮의 3인이 이름이 적혀 있다.

윤진영, 개인 교신, 2022. 9. 14.

『대한의원개원칙서』는 20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자관이 필사한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다.

제3장 서체書體

종이에 먹물과 붓을 이용하여 글자를 직접 썼을 때 나타나는 글자꼴을 붓글씨체라고 한다. 다른 말로 모필체毛筆體라고 하는데 한글, 한자, 일본 글자 등을 예술성이 나타나도록 쓴 붓글씨들은 전, 예, 해, 행, 초서 등의 형태적 분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서체書體라고도 한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한글글꼴개발연구원, 『한글글꼴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년, 138쪽

동방서법탐원과정東方書法探源課程에서는 한글 실기(1)은 판본체 실기이고, 한글 실기(2)는 궁체 실기이다.

2023년 5월 24~29일 개최되는 제24회 세종한글서예대전에서는 궁체(현대문정자, 현대문흘림, 고문정자, 고문흘림), 고체(판본체), 일반체, 세 분야로 나누어 공모를 하고 있다.

『대한의원개원칙서』의 붓글씨 서체는 분명 판본체도 아니고 궁체도 아니다. 그럼 무슨 서체인가.

서체의 이름으로는 1. 어느 시기인가 즉 시간적인 시체, 2. 장소에 따른 즉 궁중에서 궁녀들이 쓴 궁체, 3. 재료에 따른 판본체, 4. 공간적 차원의 민체 등이 있다.

김응학, 개인 교신, 2022.9.13.

1. 한글서체韓契書體

한글 서체에 관하여는 2022년 9월 24일~25일 창녕에서 개최된 2022년 한글서예학회 학술대회 석상에서 『훈민정음체에서 궁체까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홍운표의 원고 내용 대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광노봉이 보고한 한글서체명칭통일추진위원회의 『한글서체명칭통일 방안 모색(제1단계 명칭통일 백서)』와 한글서체명칭통일추진위원회의 『2단계 한글서체명칭통일 방안모색』, 그리고 2015년 서예학연구지에 게재된 장지훈의 『한글서예 서체명칭의 통일방안 연구』 등을 인용하며 정리하였다.

허경무, 김인택은 560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대회(2006년 10월 21일, 부산대학교)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조선 시대 한글 서체의 유형과 명칭』으로 한글지에 발표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조선 시대 한글 서체의 분류 기준을 확립하여 서체의 유형을 설정하고 서체 명칭을 정립하는 데 있다. 한글이 창제된 글자라는 점, 글자 생활에서 모아쓰기를 한 점, 서사 도구가 주로 붓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형성], [중앙축성], [기필의 노봉성] 세 자질을 기준 삼아 조선 시대 한글 서체를 분류하였다. 조선 시대 서체는 1. 해례본체, 2. 언해본체, 3. 궁체로 설정할 수 있으며, 해례본체를 제외한 언해본체와 궁체는 ‘획의 연결’, ‘붓길과 글자 간의 연결과 흐름’, ‘획 축약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정. 흘림, 진흘림으로 다시 분류하여, 궁극적으로 조선 시대 한글 서체를 해례본체, 언해본체 정자, 언해본체 흘림, 언해본체 진흘림, 궁체 정자, 궁체 흘림, 궁체 진흘림으로 분류. 명명하였다. 허경무, 김인택, 『조선 시대 한글 서체의 유형과 명칭』, 한글, 2007년, 275: 193~226쪽

한글 서체 분류의 시초는 1960년대에 국문학자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고, 서예가들에 의해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말이었다. 초기의 한글 서체 분류는 주로 한자 서예가들에 의해 시도되었기 때문에 ‘궁체’가 그 분류 속에 포함되지 않기도 하였다. 1980년대부터 한글 서체에 대한 분류와 명칭이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2000년대에 와서는 그 연구가 더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했던 분류체계도 몇 가지로 압축되어 논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대 초에는 ‘민체민

體'가 등장하고 있는데 주장자는 몇 안 되지만 실제로는 많은 서예가가 민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 한글 서체를 분류한다면 한글 서체는 대체로 4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한글 서체이다. 이 서체는 초기의 훈민정음의 서체를 보이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름을 따서 '훈민정음 해례본체'라고 한다. 한글 서예계 일부에서는 '판본체', 또는 '고체古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체는 변별력이 뛰어난 서체이어서 오늘날의 서체로 말한다면 제목체 또는 고딕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서체는 훈민정음 해례본체의 형태는 유지하되, 붓으로 쓰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선과 점과 원에 변화를 일으킨 서체이다. 이 서체는 대체로 변별력과 속도력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서체라고 할 수 있어서 오늘날의 바탕체에 속하는 서체라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 언해본체라고 한다.

또 하나의 서예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쓰인 자유분방한 서체이다. 그것을 민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인위적으로 개발하여 만든 서체이다. 주로 궁중에서 사용하였던 것인데, 한글의 직선을 최대한 곡선화 시켜서 쓴 서체이다. 궁중에서 주로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궁체라고 한다.

위와 같은 한글 서체의 변화로 한글 서체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된다.

- ① 훈민정음 해례본체 : 변별력이 가장 큰 서체, 현대 서체의 돌음체 또는 고딕체
 - ② 훈민정음 언해본체 : 현대 서체의 바탕체 또는 명조체
 - ③ 궁체 : 점과 선을 아름답게 표현한 서체
 - ④ 민체 : 구조와 조형을 자유롭게 표현한 서체
- 이 서체들의 특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훈민정음 해례본체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그 글자를 설명하기 위하여 만든 책이 훈민정음해례본이다. 이 문헌에 보이는 한글은 붓으로 쓴 것이라기보다는 붓으로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체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만들어진 서체로서 실제로 그 문자를 설명한 문헌인 훈민정음해례본과 초기의 문헌인 동국정운에만 쓰여서, 사용 시기는 엄밀히 말하면 1446년~1447년의 2년 동안이라고 할 수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체의 범위를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까지 넓힌다고 해도 여전히 1447년이 상한선이다. 즉 훈민정음 창제 직후이다.

(2) 훈민정음 언해본체

훈민정음 언해본에 쓰인 서체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 서체인데 주로 관청에서 간행한 문헌에 많이 사용되었다. 변별력과 속도력을 동시에 지니는 서체이다. 훈민정음 언해본의 현존 최고본은 서강대학 소장의 『월인석보 권 1』의 앞에 붙어있는 책이다. 그래서 최초의 훈민정음 언해본체는 월인석보체라고 할 수 있다.

이 훈민정음 언해본체는 전국 각 지역에서 사용되었다. 훈민정음 언해본체는 여러 지방의 감영에서 간행한 각종 문헌에 모두 나타난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에서 모두 사용한 한글 서체이다.

훈민정음 언해본체는 소멸하지 않고 계속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더 나은 아름다운 서체, 예컨대 궁체가 나왔어도 훈민정음 언해본체는 약간의 변형을 경험했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체처럼 완전히 소멸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서체가 속도력이 있고, 변별력도 갖추고 있으면서 다양한 내용을 표현하는 데에도 적합한 서체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훈민정음 언해본체는 그 변이형이 매우 많아서 이들도 세분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변이형들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예컨대 18세기말에 등장한 두 문헌을 보이면 이들을 훈민정음 언해본체 속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훈민정음 언해본체의 세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적이 없어서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된다.

홍윤표, 『훈민정음체에서 궁체까지』, 2022년 한글서예학회 학술대회, 창녕, 9. 24. ~ 9. 25., 7~54쪽

간경도감체

조선 세조 7년(1461)에 불경을 간행하기 위해 설치된 간경도감刊經都監의 목판에 나타난 글자체. 간경도감체는 1463년에 나온 법화경언해, 1575년에 복각하여 나온 원각경언해에 나타나는바 상하로 긴 자형을 이루는 목판본의 정자체 글꼴이다. 이 불경들 가운데 목판 글자체로 대표적인 능엄경언해의 글자체는 달소리와 흘소리의 크기 차이를 작게, 가로 세로의 획 기울기를 수직 수평으로, 세로획의 처음 부분은 뾰족하게, 끝부분은 둥글게 나타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한글글꼴개발연구원, 『한글글꼴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년, 15쪽

(3) 궁체宮體

한글의 서체는 고체의 근엄함에서 궁체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어 갔다.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체古體, 예문, 네이버 검색

한글 서체 변형의 극치는 궁체이다. 서체의 변화나 새로운 서체의 창조는 글씨의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창조하는 것인데, 선(또는 획)과 점의 배열과 글자들의 구조적이고 예술적인 구도로 되어 있다.

궁체라는 단어는 한글 서체가 아닌 한자의 서체에 대한 것이기는 하지만, 17세기 초에 이미 ‘궁체宮體’라는 단어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죽천竹泉 이덕형李德潤(1566~1645)의 수필집인 필사본 『죽창한화竹窓閑話』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전한다. “궁체宮體란 무슨 뜻인가?” 하니, 장인이 또 대답하기를 “진陳나라 후주후主때 강총江總이란 사람이 글씨를 화려하고 아름답게 써서, 이것을 궁중에서 본받아 썼기 때문에 궁체라고 하옵니다. 그리고 양梁나라 서이도 역시 궁체를 썼습니다.” 하였다. 장인이 집에 돌아가서 자제들에게 이르기를 “지금 문관들이 모두 글을 읽지 않아서 심지어 궁체도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할 일이다” 하였다.

홍윤표, 『훈민정음체에서 궁체까지』, 2022년 한글서예학회 학술대회, 창녕, 9. 24. ~ 9. 25., 7~54쪽

‘궁체宮體’란 단어는 원래 서체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래는 문체文體의 한 종류로서 ‘궁체’는 이미 중국에서 널리 알려졌다

던 것이다. ‘궁체’란 한문의 문체로부터 시작하여 서체로 발전하여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한글 서체의 명칭이 된 동기로 보인다. ‘궁체’ 필사가 대량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1750년대 이후로 보인다.

홍윤표, 『한글 서예와 한글 서체』, 태학사, 파주, 2023년, 189~194쪽

궁체는 궁중에서 쓰기 시작한 필사체로 바르게 쓴 정자체와 흘려서 쓴 흘림체의 서체가 있는데 궁체는 궁중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처음 등장하는 문헌으로 ‘궁체’라는 말은 이옥李鈺(1760-1812 문장가)의 『서호죽지사西湖竹枝詞』에 보이는 ‘早學宮體書 異凝微有角 舅姑見之喜 諺文女提學’ 문장의 ‘宮體’라는 말에서 이미 이 시기에 이 말이 쓰여졌음을 보인다(처음 발견하신 분은 김진세 교수).

박병천, 개인 교신

(사)갈물한글서회

궁체의 보급에 기여하는 단체로 1958년에 갈물 이철경 선생님(1914~1989년)을 중심으로 창립된 한글서예 단체 (사)갈물한글서회가 있다.

갈물 이철경 선생님과 꽃뜰 이미경 선생님(1918~2022년)의 지도 아래, 우리 고유의 전통 궁체를 연구, 발전시켜 오늘날의 한글 궁체를 완성하였다. 궁체의 독창성과 수려한 예술성을 지키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나아가 우리 한글의 우수성과 찬란한 예술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이바지하고자 노력해 왔다. 서울 정도 600년 기념행사로 타임캡슐에 갈물한글서회의 도록을 남긴 바 있고, 회원들의 작품 200여점을 해외 공관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사)갈물한글서회는 정기적 전시회, 학술 발표회, 논문 발표, 서적 발간 등의 서체 연구와 창작 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은 물론, 한국 서단의 발전과 한글 서법의 개발 및 궁체의 보급에 기여하는 문화 예술 단체이다.

(사) 갈물한글서회 소개, <http://www.galmul.or.kr/>

(4) 민체

민체는 궁체에 대립시켜 만든 용어다. 백성들이 정제되지 않은 자유로운 글씨를 썼다는 의미이다.

(5) 판본체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등에 나타난 서체를 목판木板 인쇄 방법을 따른 것으로 보아 판본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윤양희, 『중학교 서예』, 우일출판사, 서울, 1984년, 19쪽

윤양희, 『한글書藝 指導方法 改善을 위한 研究』, 韓國教育開發院, 서울, 1985년, 43쪽
장지훈, 개인 교신, 2022. 9. 13.

윤양희, 개인 교신, 2023. 3. 24.

한글글꼴용어사전에 의하면 판본체板本體, 版本體에서 판본板本은 목판으로 인쇄한 책이고, 판본版本은 목판, 활자, 석인 등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 찍어낸 모든 책을 말한다. 이러한 책에 찍힌 글씨체를 각각의 판본체라고 하지만 대체로 고서본의 인출용 글씨체와 이를 본보기로 한 서예적 측면의 필사체도 판본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같은 굵기로 구성된 사각형의 훈민정음 글꼴의 판본체, 굵기의 변화가 있는 상하로 긴 자형의 오른행실도 글꼴의 판본체 등 의미성이 다양하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한글글꼴개발연구원, 『한글글꼴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울, 2011년, 268쪽

판본체란 한글 창제 직후에 나온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 『동국정운』 등의 판본에 쓰인 글자를 기본으로 쓴 붓글씨의 글자꼴이다. 오래된 글씨체라는 의미에서 고체古體, 또는 『훈민정음』을 본받아 쓴 글씨라는 의미에서 정음체正音體라고도 불린다. 처음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을 때는 모든 점과 획이 원필법圓筆法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후에 발간된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 등에는 방필법方筆法으로 되어 있다. 판본체는 한자의 전서나 예서의 획을 본받아 썼는데, 글씨의 특징을 살펴보면 획의 굵기가 일정하고 사각형에 가까운 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문자의 중심을 가운데에 두고 좌우가 대칭을 이루는 기하학적인 자형을 취하고 있다. 함께 쓰는 모음에

따라 자음의 폭이 넓거나 좁게 변한다.

두산백과 두피디아, 2022. 10. 13., 네이버 검색

판본체는 훈민정음 해례본체라고 해야한다. 훈민정음 해례본체라는 말은 20세기에 나온다. 처음 붓으로 쓴 사람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 세종대왕이 만들어 누군가에게 쓰게 했을 것이다. 처음 등장하는 문헌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며 판본체는 필사본체의 상대어일 뿐이다. 판본版本의 판版자는 조판組版으로 인쇄한 책이란 뜻이고, 본本자는 손으로 직접 쓴 책을 말하는데 조판이 성행한 이후에는 판본이란 명사로 고정되었다고 한다. 광의적인 면에서는 활자로 찍은 활자본을 비롯하여 답본榻本, 석인본, 영인본도 판본의 일종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판본이란 용어에는 필사본이나 인쇄본 모두를 포함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박병천, 『한글서체학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서울, 2014년, 45-46쪽

판본체라는 명칭에는 모호성이 있다. 필사본에는 판본체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이름을 바꾸었으면 좋겠는데, 훈민정음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홍윤표, 『한글 서예와 한글 서체』, 태학사, 파주, 2023년, 426쪽

(6) 서예 명칭 통일방안

한자 서체가 5종인 데 반해, 한글 서체의 명칭은 약 42개 정도 쓰이고 있어서 마치 42종의 다양한 한글 서체가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한다. 지금까지 서예계에서 주로 사용해온 서체 명칭을 분류해보면 판본체류, 궁서체류, 일반체류로 분류된다. 서체 명칭의 사용 빈도를 보면, 판본체류에서는 판본체>고체>반포체 순서로 나타났고, 궁서체류에서는 궁체>정자>흘림>진흘림 순서로 나타났으며, 일반체류에서는 조화체>잡체순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 3, 4, 5, 6학년이 사용하는 국정 미술 교과서에서는 한글 서체 명칭을 판본체와 궁체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학교 검정 미술 교과서에서는 판본체와 궁체는 물론이고, 궁체에 다시 정자, 흘림, 반흘림, 진흘림, 그리고 국한문 혼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 중등학교의 교과용 도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저자와 출판사에 따라 명칭의 차이

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글 서체의 분류체계와 명칭이 매우 혼란스러운 실태임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서예계에서는 한글 서예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연합하여 『한글서체명칭통일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2006~2007년 두 차례 공청회를 실시한 후 『한글서체명칭통일 방안모색 - 1단계 명칭통일 백서(2007)』를 배포하였다. 이 자료집은 서체 명칭을 통일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 과정을 정리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였다. 한글서체명칭통일 방안모색 - 1단계 명칭통일 백서에서는 한글서예 서체 명칭의 기본원칙으로 ‘말하기 쉽고’, ‘듣기 좋으며’, ‘뜻이 분명하고’, ‘함유한 의미가 풍부해야 한다.’ ‘우리글의 서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한자어가 아닌 고유어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기되었다. 과거의 서체를 통섭하면서 현대를 아우르고 후대로 계통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①간명하고 ②합축적이며 ③쉽고 ④체계적인 명칭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장지훈, 「한글서예 서체명칭의 통일방안 연구」, 『서예학연구』, 2015년, 27 : 401~426쪽

한글서체명칭통일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한 한글서체명칭 통일에 관한 공청회는 2006년 11월 10일 백범기념관에서 『한글 자·서체 명칭 분류 시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한 『제1단계 명칭통일 백서』의 서체 명칭과 분류안 제1안은 아래와 같다.

- ① 정음해례본 : 정음원체(훈민정음 해례본), 정음방체(용비어천가, 석보상절)
- ② 정음언해체 : 정자(심청전, 춘향전), 흘림(조웅전, 진흥림(삼국지))
- ③ 궁체 : 정자(옥원둥회연), 흘림(낙성비룡, 진흥림체(인봉소))
- ④ 민체 : 정자(숙향전, 무곡전, 소대성전), 흘림(유충렬전 등), 진흥림체(유최헌전 등)

『한글서체명칭통일 방안모색(제1단계 명칭통일 백서)』의 결론에서 가장 이상적인 한글서체명칭을 세 가지 방면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 ① 고체,
- ② 정자(체),
- ③ 흘림(체)

이는 자형에 근거한 명칭이고, 한글 서예와도 견줄 수 있는 명칭이며,

현행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명칭으로 삼은 것이기도 하다. 정자와 흘림을 고체와 어울리게 말하자면, 정자체 · 흘림체라고 명명할 것이고, 여기에 ‘글씨’를 넣어도 좋을 것이다. 여기서 고체는 자형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자체’를 근거로 한 것이나, 이런 글씨를 ‘판본체’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오래된 ‘자체’라는 뜻으로 ‘고체’라고 일컫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둘째. ‘궁체’에 대한 문제이다. 궁체는 궁중에서 주로 서사 상공들이 붓으로 서사할 때 사용했던 한글 서체가 표본이 되어 새로운 서체가 보편화됨으로써 나름대로 체계를 이루었고, 명칭 또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글 서체의 일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글 서예가들 대부분이 ‘궁체’라는 명칭으로 한글 서예를 아우르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형이나 서체를 근거로 한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서체 분류에서 상위 분류에 속하지 않고 하위 분류에 속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서단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

셋째. ‘해례본체’ ‘판본체’ ‘민체’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명칭도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한 작품 제작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서체 명칭이다. 그러나 해례본체와 판본체는 판각과 판본이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서예라고 볼 수 없고, 민체는 서체보다는 서풍에 속한 것이라 민간 서풍이라 해야 옳은 명칭이기 때문에 한글 서체 명칭으로는 타당치 않다고 본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단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므로 역시 문제점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

2007년 4월 28일 예술의전당에서 ‘한글서체 분류와 명칭 통일에 관한 제2차 공청회’라는 제목으로 개최한 제2차 공청회에 제시된 시안의 제1안은 아래와 같으며

- ① 해례본체 - 해례본체
- ② 언해본체 - 언해본체정자, 언해본체흘림, 언해본체진흥림
- ③ 궁체 - 궁체정자, 궁체흘림, 궁체진흥림

특히 제2차공정회에 제시한 시안에서 제2안은 서체 분류의 체계를 서체 변화과정에 따라 통합적 대분류 체계를 만들고, 이러한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한글 서체 변천 과정에서 나타난 개별적 서체를 분류하는 소분류 방법을 제시했다.

- ① 곧은체
- ② 바른체
- ③ 흘림체
- ④ 진흘림체

『한글서체명칭통일 방안모색 - 제1단계 명칭통일 백서』, 한글서체명칭통일추진위원회, 2007.

곽노봉, 『한글서체명칭통일 방안모색』, 서예민화書藝文人畫, 2015. 1., 92~103쪽
 곽노봉, 『한글서체명칭통일 방안모색(2)』, 서예민화書藝文人畫, 2015. 2., 94~103쪽

한글 반포 570돌 기념 2016 장서각 특별전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의 한글 서체표에서는 1 정자체, 2 흘림체, 3 목판본, 4 금속활자로 나누고, 정자체는 『고문진보』(숙종 후반), 『어제자성편언해』(1746년), 『학석집』(19세기), 『산성일기』(연대 미상), 흘림체는 『손방연의』(18세기), 『무오연행록』(1799년), 『정미가례시일기』(1848년 이후), 『여사서』(19세기 말~20세기 초), 『동의보감』(연대 미상)을 예시하였다. 그리고 목판본은 『대불정수능엄경』(1462년), 『월인석보』(16세기), 『언해두창집요』(1608년), 『무예도보통지』(1790년)를 금속활자로는 『분류두공부시언해』(1481년) 을해자, 『대방광원각경』(1565년) 을유자, 『어제내훈』(1737년) 무신자, 『가체신금사목』(1788년) 정유자, 『어제약장』(1795년) 정리자를 예시하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성남시, 2016년, 360~363쪽

2. 한글정자체韓契正字體의 분류分類

(1) 관료서체官僚書體

이규복은 2020년 출판한 단행본 조선시대 한글 글꼴의 형성과 변천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상원사중장권선문』 서체의 여러 특징은

후대 관료들의 글씨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을 보인다. 이처럼 후대 관료들의 글씨에서 같은 특징들이 계속 보인다는 것은 특정한 특징을 갖춘 서체가 일정한 형식을 이루게 되고, 이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하나의 큰 계통을 형성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계통의 글씨가 계속해서 계승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선조국문유서』(1953), 『소훈이씨제문언해』(1721), 『어제자성편언해』(1746), 『천의소감언해』(1755), 『고문진보언해』(영조년간), 『임산예지법』(18세기), 『유빈박씨애책문』(1823), 『명성황후상존오옥책문』(1890), 『외진연시무동각정재무도홀기』(1901), 『책황귀비홀기』(1903) 등이 이러한 계통의 서체 흐름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서체는 필사체의 특성상 각 서사자에 따른 일부 개성 혹은 숙련도의 차이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한글 글꼴의 완숙도에 있어서 조금씩 다를 뿐, 큰 틀에서 보면 관료들이 사용하는 서체의 계통을 잇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원사중장권선문』 이후에 나타나는 관료서체에서는 후대로 갈수록 조형 체계로의 공간 배분으로 이동하지만 종성 ‘ㄴ, ㄹ, ㅁ, ㅂ’ 등의 크기가 약간 축소되는 경향의 변화만 보일 뿐이다. 특히 전체적인 글꼴의 짜임과 종성 ‘ㄴ, ㄹ, ㅁ, ㅂ’ 등의 글꼴과 공간을 넓게 형성하는 특징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또한 ‘ㅣ’ 축으로의 정렬이 보이는 하지만 종성이 모음 ‘ㅣ’에 종속되지 않고 초성 ‘ㅇ, ㅁ’ 등이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궁체와 같은 온전한 ‘ㅣ’ 축 정렬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일정한 형식을 형성한 서체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집단, 즉 관료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이를 전수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한 이유는 위에서 예를 든 문서와 책들을 필사한 서사자가 모두 관료로 추정 또는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의 서체를 관료서체라 부를 수 있겠다. 관료서체는 한글 실용화의 단계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서체로 후대에까지 이어지는 한글 서체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으며, 관료서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에 천착하여 후에 적절한 단어로 변경할 수 있음도 미리 밝혀둔다. 이 관료서체는 궁중의 공식적인 문서나 책 간행 등의 서사에 사용되었고, 왕가의 서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선조와 숙종의 연간이나 숙명공주 연간. 낭선군 이우李倬(1637-1693)의 글씨로 추정되는 『양문탑동표석』

의 글씨에서 관료서체의 특징들을 볼 수 있기에 그렇다.”
이규복, 『조선시대 한글 글꼴의 형성과 변천』, 이서원, 성남시, 2020년

이우 :

선조의 제12남 인흥군仁興君 이영李瑛의 장남

(2) 『관공체官公體 Official Script』

『대한의원개원칙서』의 정자체 붓글씨는 누가 서사하였다는 기록을 아직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사자관체』는 우리나라 사전에 이미 조선 시대에 한호韓滙가 확립한 독특한 한문서체漢文書體로 외교外交 문서와 관공官公 문서에 사용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즉 한문 서체의 하나로 인식되어 있다. 문헌이나 인터넷 검색에서 한문 서체를 지칭하지 않으면서, 『대한의원개원칙서』와 고종황제의 국한문혼용 외교문서에 나타난 단어하고 아름다운 한글 서체를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서체 명을 찾고자 하였다.

필자는 『대한의원개원칙서』의 서체를 『문관文官, 서사관書寫官, 사자관寫字官 等等 이 공식公式 문서 등에 자체字體가 바르게 또박또박 쓴 정자체正字體』 서체 중의 하나라고 정의定義하였다. 이후 여러 학자들(고인수, 김응학, 한재훈, 등)에게 의견을 들은 후, 기존의 한자 관련 서체 명칭과는 다른 새로운 서체 명으로 『관공체官公體』라 명명하였다. 영어로는 Official Script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서체 관련 용어들이 정의定義는 무엇이고, 언제, 누가, 어느 문헌을 통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는지의 기록들이 불분명하여 관공체에 관련된 기록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였다. 『관공체官公體』의 정의定義는 『문관文官, 서사관書寫官, 사자관寫字官 等等 이 공식公式 문서 等等에 자체字體가 바르게 또박또박 쓴 정자체正字體』이다. 2022년 9월 22일 상표등록(출원번호 40-2022-0174282)을 출원하였다. 『한글재민체소고韓契在民體小考』 도서를 통하여 관공체의 정의를 처음으로 보고한다.

官公體記 :

官은 治國의 實政을 구현하는 기관이자, 平天下의 理想을 실현하는 창구이다. 英祖는 재위 18년(1742) 향후 官에서 治平의 도를 펴게 될 성군관 유생들을 경계하기 위해 堂평비蕩平碑를 세워 堂쟁의 태풍弊風에서 벗어나 참다운 인재가 되기를 권하였다. “두루 어울리고 편당짓지 않음은 군자의 공평한 마음이고, 편당짓고 두루 어울리지 않음은 소인의 사사로운 뜻이다.”[周而不比, 乃君子之公心, 比而不周, 寔小人之私意.] 나라 안의 백성들과 나라 밖의 사람에게 베푸는 치국과 평천하의 근간은 ‘공정한 마음[公心]’이어야 한다. 사사로운 생각[私意]은 끼어들 틈이 없다. 박재갑과 김민은 文官·書寫官·寫字官 등이 공식 문서 등에 사용한 서체를 복원하며, 官에서 배포하는 공식 문서에는 字體가 바르고 또박또박 쓰여진 정자체이며, 治平의 도를 펴고자 하는 公心을 담고 있으므로, ‘官公體’라 명명하였다.

友千 고재석 부연數衍, 개인 교신, 2022. 9. 14.

3. 한글서체표韓契書體表와 한글서체도韓契書體圖

서로 다른 표기 대상으로 인하여 세종의 새 문자는 훈민정음訓民正音, 정음正音, 그리고 언문諺文 이라 불렸다. 즉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정리하기 위한 발음기호로서 훈민정음이라 불렀고, 한자의 중국 표준음을 위한 것으로는 정음이라 하였으며,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서는 언문이라 하였다. 물론 이 명칭은 모두 같은 문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훈민정음, 정음, 그리고 언문의 어느 하나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문자의 명칭으로 볼 때 이런 구분이 가능하다. 즉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한자음”의 뜻을 가진 훈민정음은 『동국정운東國正韻』을 편찬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며, 정음은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의 중국 표준 한자음을 표음하기 위한 것이고, 언문은 우리말과 우리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한 명칭이었다.

정광, 『새로운 시각視角으로 본 훈민정음 제정의 경위經緯 - 세종의 새 문자 제정에 참여한 인물을 중심으로』, 영축총림 통도사 특별학술대회 - 『훈민정음 창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 영축총림 통도사, 2022. 10. 7., 7쪽

정음자 :

훈민정음의 글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정음 :

일반명사 (언어) :

조선시대, 1443(세종 25)년에 조선의 4대 왕 세종世宗이 집현전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창제創製한 우리나라 글자. 자음 17자, 모음 11자로, 모두 28자로 이루어졌다.

고유명사 (책명) :

조선 시대, 1446(세종 28)년 훈민정음을 반포할 때 찍어 낸 목판본 해설서. 전권 33장 1책으로 되어 있다. 1962년에 국보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네이버 검색

필자는 『1단계 한글서체명칭통일 방안모색의 시안 및 결론』과 2단계 한글서체명칭통일방안에서 제시된 1안 및 2안 한국학중앙연구원서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 570돌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개최한 2016 장서

각 특별전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의 도록에서 제시한 내용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표4. 한글서체표).

① **훈민정음 해례본체訓民正音解例本體** :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서체를 훈민정음 해례본체라 하며 약칭 정음체正音體라 한다.

② **정자체正字體** : 훈민정음 언해본체를 정자체라 한다. 정자체에는 민체정자와 관공체 및 궁체정자를포함한다.

③ **흘림체** : 흘림체에는 민체흘림과 궁체흘림을 포함한다.

이러한 분류방식에 따르면 『대한의원개원칙서』의 붓글씨 서체는 정자체(바르고 또박또박 쓴 글자체, 표준국어대사전, 네이버 검색)다.

그리고 한글재민체는 정자체인 관공체에 기반을 두고 탄생한 것이다(그림2, 한글서체도).

앞에서도 기술하였듯이 홍윤표 교수는 “훈민정음 언해본체(즉 정자체)는 그 변이형이 매우 많아서 이들도 세분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변이형들을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으며 훈민정음 언해본체의 세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적이 없어서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표4. 한글서체표韓契書體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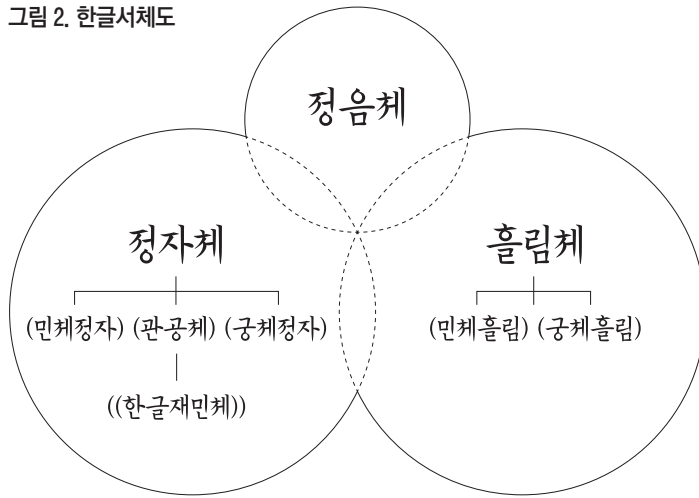
2006년 11월10일	서체명칭통일추진위원회 1회 공청회	시안	정음해례본체	정음언해체	궁체	민체	-
		결론	고체	정자체	흘림체	-	-
2007년 4월28일	서체명칭통일추진위원회 2회 공청회	시안 1안	해례본체	언해본체	궁체	-	-
		시안 2안	곧은체	바름체	흘림체	진흘림체	-
2016년 6월28일	『한글, 소통과 배려의 문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글서체표	-	정자체	흘림체	-	목판본 금속활자
2023년 5월5일	『한글재민체소고』 한글재민체연구회	한글서체표	정음체*	정자체 (민체정자) (관공체) (한글재민체) (궁체정자)	흘림체 (민체흘림) (궁체흘림)	-	-

정음체* : 훈민정음 해례본체

() : 중분류

(()) : 소분류

그림 2. 한글서체도



정음체 : 훈민정음 해례본체 『한글재민체소고』
 () : 중분류 한글재민체연구회
 (()) : 소분류 2023.5.5.

4. 한자서체漢字書體 해서체楷書體의 분류分類

한자서체는 크게 전서篆書, 예서隸書, 해서楷書, 행서行書, 초서草書 다섯가지로 구분한다. 시대 순서로 나열한 것인데, 이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체는 해서체다. 해서는 정해正楷, 정서正書, 진서眞書라고도 부르는 한자의 글씨체이다. 이 글씨체는 오늘날까지 한자의 정체正體로 간주되어 인쇄된 서적에 찍힌 한자는 대개 해서체의 모양으로 되어있다.

해서체, 네이버 지식백과

해서체의 몇 가지 소분류에 대하여 알아본다.

(1) 대각체臺閣體 · 관각체館閣體

명, 청대明清代의 묵색이 짙고 글씨 크기가 고른 네모 반듯하고 깔끔한 관청의 서체. 명대에는 ‘대각체臺閣體’로, 청대에는 ‘관각체’로 불렸다. 이 서체는 명, 청대의 한림원翰林院의 관료들이 즐겨 사용하였

고 과거 응시자에게도 요구되어 청대 건륭乾隆 중엽 이후 크게 융성하였다.

원래 관각體閣體는 송대宋代에 소문관昭文館, 사관史館, 집현원集賢院과 비각秘閣, 용도각龍圖閣, 천장각天章閣을 통칭하였으나 명, 청대에는 관각이 모두 한림원으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원래 관각체라 하면 한림원의 서체라는 뜻이 된다. 그러나 후에는 판에 박은 듯 몰개성적인 서체를 낮게 평가하여 모두 관각체라 부르게 되었다.

세계미술용어사전, 월간미술, 1999.

붓글씨에는 여러 필체가 있다. 관각體閣體도 그 하나다. 왕조 시절 정부기관인 관館이나 각閣에서 썼던 글씨 유형이다. 때론 문체文體도 가리킨다. 조선에서는 홍문관弘文館이나 예문관藝文館, 그리고 규장각奎章閣 등이 그 기관에 해당한다.

중국의 관각체 전통은 펍 유장悠長하다. 명대에는 대각체臺閣體로 불렸다가 청대에 지금 말로 자리를 잡았다.

정부의 공식 문서에 쓰는 필체라서 특징이 두드러진다. 누구든지 잘 알아볼 수 있어야 함이 우선이다.

따라서 읽기 쉬운 해서楷書로 써야 한다. 아울러 ‘반듯함方, 밝음光, 검정烏’을 갖춰야 한다. 공문서이니만큼 의사를 정확히 전달해야 했던 까닭이다. 나중에는 과거科擧 응시자들도 이를 쓰지 못하면 낙방落榜을 감수해야 했다.

우선 장중하고 우아하다는 장점이 있다. 황제도 읽는 문서여서 글씨를 다듬고 또 다듬었던 전통이 쌓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형식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딱딱한 공문서라서 자유로운 감성이 들어설 여지는 아예 없다.

유광중, 『중국 정부의 붓글씨 필체』 조선일보, 2022. 1. 14.

(2) 사자관체寫字官體 간록체干祿體

조선 시대에 한호韓濩가 확립한 독특한 한자漢字 서체書體로 외교外交 문서와 관공官公 문서에 사용되었다.

우리말샘, 네이버 검색

한호韓濩 석봉石峯

조선시대 글씨로 출세하여 사자관寫字官, 서사관書寫官을 역임한 서예가. 문신. 본관은 삼화三和. 자는 경홍景洪, 호는 석봉石峯·청사淸沙. 군수 대기大基의 5대손으로, 정랑 세관世寬의 손자이다. 1567년(명종 22)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1583년(선조 16) 와서瓦罽 별제別提에 제수되었다. 글씨로 출세하여 사자관寫字官으로 국가의 여러 문서와 명나라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도맡아 썼고, 중국에 사절이 갈 때도 서사관書寫官으로 파견되었다. 벼슬은 흡곡현령歙谷縣令과 가평군수加平郡守를 지냈다.

그의 묘갈墓碣에 의하면, “송도松都에서 났으며, 점점보는 사람이 말하기를 ‘옥토키가 동쪽에 났으니 낙양洛陽의 종잇값이 높아지리라. 이 아이는 반드시 글씨를 잘 써서 이름이 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자라면서 글씨 쓰기에 힘썼고, 꿈에 왕희지王羲之에게서 글씨를 받아, 이로부터 마음속으로 자부自負하고 법첩[法帖: 체법體法이 될 만한 명필의 서첩]을 대할 때마다 신神이 돕는 것 같아 마침내 해서楷書·행서行書·초서草書에 그 묘妙를 다하지 아니함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의 서법書法은 조선 초기부터 성행하던 조맹부趙孟頫의 서체를 따르지 않고 왕희지를 배웠다. 그러나 그가 배운 것은 진위眞僞가 문제 되는 『악의론樂毅論』·『동방삭찬東方朔贊』·『황정경黃庭經』 등의 소해小楷에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조법趙法보다 뒤떨어져서 진당인晉唐人의 높고 굳센 기운氣韻이 모자라는 저속한 구령으로 떨어졌다. 또한, 한미寒微한 출신으로 오랫동안 사자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술적인 타고난 재질을 발휘하지 못하고 틀에 맞추려는 노력이 앞섰다. 『동국금석평東國金石評』에는 모든 글씨체에 숙달되기는 하였으나 속되다고 비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로부터 국가의 문서를 다루는 사자관의 특유한 서체, 즉 사자관체寫字官體가 창출될 만큼 그의 영향은 컸으며 또 이로부터 사자관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서체를 중국에서는 간록체干祿體라 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네이버 검색

박용만의 논문 흥재전서弘齋全書 편찬과정의 사자관寫字官 성격과 역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자관은 개인적인 취향의 필체가 아니라 동일한 필체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획일화된 서체는 사대교린의 문서와 어제를 정서하는 사자관의 기본적인 책무와도 관련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실제 사자관과 서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논문에서 정조는 당대 서풍書風도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였다. 조선의 서예가 중국의 순정하지 못한 서풍을 그대로 흉내 낸다고 비판하면서, 조선 때 안평대군安平大君(1418~1453)이나 한호韓濩(1543~1605)의 순박한 글씨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민식, 「정조正祖의 서체반정書體反正」, 『경기사학6』, 경기사학회, 2002년, 161~162쪽. 문장에 있어서 문체반正文體反正이라고 하는 것처럼 서예에 있어서 서체반정書體反正을 통해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정조의 서체반정은 사자관의 서풍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하였다.

사자관은 본래 사자관의 서체書體가 있는데, 액체額體 편액 서체와 한체韓體 한호의 서체는 좋지 않게 보고 당체唐體등과 같은 번중繁重하지 않은 각 서체를 반드시 모방하려고 하다 보니, 이처럼 하는 동안 이른바 사자관의 서체라는 것이 날로 진면모를 잃게 되었다. 이것은 수십 년 전부터 점차 버릇이 되어 오늘날 고질적인 폐단을 이룬 것이다. 근일 내각에서 어제御製를 서사書寫한 것과 『대전통편大典通編』을 간인刊印한 것을 보면 당체唐體도 아니고 속체俗體도 아니어서 뽀족하고 가는 것(첨세尖細)이 감히 눈으로 보지 못할 정도이다. 해원該院이 취재取才할 때 만약 유의하여 권면하고 독려하였다면 어찌 이럴 리가 있겠는가. 이후로 사자관들 중에 흑시라도 다시 잘못된 버릇을 인습하여 획畫이 둔후敦厚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공사제조公事提調가 별도로 처벌하라.

규장각원문검색서비스, 『일성록日省錄』, 서기 1785년 정조 9년 6월 19일(병신), 0174권, 奎12811, 0099-0099면

정조는 사자관의 서체 곧 寫字官體가 있음을 말하면서, 그 편액에 사용하는 액체額體와 한호의 서풍을 따르는 한체韓體를 사자관체의 전형으로 이해하였다. 액체는 원나라 이부광李溥光이 사용한 편액의 대자大字를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 전하여 당액의 서체로 사용하였다.

寫字官自有寫字官之體。而額體韓體。看作疲惱。如唐體等不緊各體。必欲倣而放之。如是之際。所謂寫體。日就失真。此蓋漸染於數十年前。今成痼弊。以近日內閣御製書寫本。大典通編刊印本觀之。非唐非俗。尖細不敢掛眼。該院取才。若能着意勸課。豈有是也。此後寫字官等。更或復循謬習。畫不敦厚者。公事提調另加施罰。

이익의 『성호사설』 설암편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있다.

설암雪庵의 글씨는 우리 나라에 전하여 당액堂額의 체로 되어 액체額體라 이르는데, 사람들이 흔히 설암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에 이르기를 “대동부大同府 선석仙釋 이부광李溥光이 어려서 중이 되었는데, 글을 읽어 시에 능하고 서법書法을 잘 알아서 한때에 궁성宮城 전우殿宇의 편액扁額이 다 그 손에서 나왔다.” 하였으니,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익李瀾(1681~1763), 민족문화추진회 편, 『제9권, 인사문人事門, 설암雪庵』, 『국역 星湖僊說Ⅳ』, 민족문화추진회·민족문화문고간행회, 서울, 1982년, 70~72쪽

한체는 정조가 가장 순정한 사자관체로 지칭하는 한호의 서풍을 말한다. 정조는 당시 사자관체가 잘못된 습기習氣로 인해, 당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속체도 아닌 비당비속非唐非俗의 서체이며 뽀족하고 가는것(尖細)이 특징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원인을 사자관이 여러 서체를 모방하다 결국 그 진眞을 잃어버리고만 것에서 찾으면서 그 근거로 1785년 간행된 ‘대전통편’과 선사한 어제御製를 제시하였다.

조선 후기 학자 이극익은 ‘연려실기술’에서 이해룡과 석봉 한호를 사자관 시초로 꼽았다.

박용만, 『弘齋全書』 편찬과정의 寫字官 성격과 역할, 장서각, 2021년, 45:134~163쪽

간록 :

관리가 되어 녹봉을 구한다는 뜻으로, 관리가 되고자 함을 이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

석봉石峯 :

그를 노예 라고 지칭하는 것이 비록 황당하지만 / 종왕鍾王 으로 부르는 것 또한 어찌 참이라 / 이삼백 년 동안 필적할 솜씨 없었으니 / 시비를 따지자고 감히 사람을 속이라 / 指爲奴隸雖多妄 / 喚作鍾王亦豈眞 / 三二百年無對手 / 是非要定敢誣人

박세당朴世堂, 『석봉石峯, 시詩 석천록石泉錄 상』, 『서계집西溪集 卷2』, 간행년도 미상, a134_033a 쪽, 한국고전종합DB

한호韓濩의 글씨에 대한 품평品評

원접사遠接使 정유길鄭惟吉(1515~1588)이 중국의 조사詔使(황제의 조서를 들고 온 사신) 한세능韓世能을 의주義州에서 맞이하였는데, 한세능이 한호韓濩의 글씨를 매우 상찬賞讚하였다. 등계달滕季達이 전에 그 수적手迹을 얻어 감주叡州 왕세정王世貞에게 보여 주자, 감주는 “조송설趙松雪 에 비견할 만하다”고 하였고, 도장경屠長卿 은 “성난 사자가 바위를 후벼 파는 듯하다”고 하였다.

한재훈, 개인 교신, 2022. 8. 24.

성균관 ‘명륜당’의 현판을 쓴 명나라 사신 주지번은 “마땅히 왕희지, 안진경과 더불어 우열을 다룰 만한 솜씨다.”라고 하였다. <송도지>에 따르면 임진년에 조선에 온 명나라 장수 이여송, 마귀, 복해, 등계달 그리고 유구국의 양찬지 등이 모두 그 글씨를 구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고 적고 있다. 선조 임금은 한석봉이 한가한 곳에 머무르면서 서예를 익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가평군수에 임명하기도 하였다.

이익, 『성호사설』 한석봉 부분 참고, 고재석, 개인 교신, 2023. 3. 13.

석천록石泉錄：

『석천록石泉錄』 무신년(1668, 현종 9)에 선생이 벼슬을 그만두고 물러나 석천에 거처한 이후에 지은 것이다.

노예 한호는 사자관寫字官으로 국가의 여러 문서와 명나라에 보내는 외교문서를 도맡아 썼으며, 한미한 출신으로 사자관으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타고난 예술적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틀에 맞추려는 노력이 있었으므로 이른 말이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국가의 문서를 다루는 사자관의 특유한 서체가 창출될 만큼 그의 영향은 컸으며 또 이로 부터 사자관 제도가 이루어졌다. 『동국금석평東國金石評』에 “석봉은 모든 글씨체에 숙달하였으나 속되다.”라고 평하였다.

종왕鐘王：

위魏나라의 종요鍾繇와 진晉나라의 왕희지王羲之를 말하는데, 이 두 사람은 모두 서예에 능하였다.

제4장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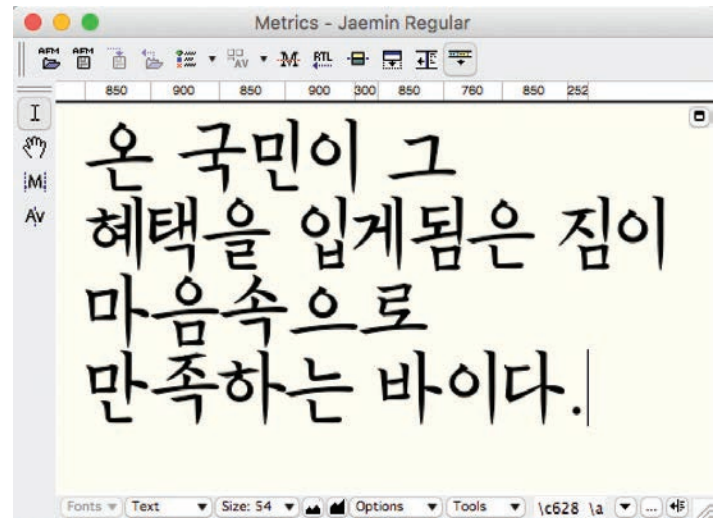
1. 『한글재민체1.0』

2020년 한글날 ‘대한의원개원칙서’에 포함된 33자 한글 붓글씨체筆體Calligraphy에 기반을 둔 현대적 감성의 폰트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Hangeul Jaemin Font를 개발하였고, 2020년 574돌 한글날을 맞아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에서는 새로운 한글 글꼴 ‘한글재민체’를 발표하는 특별전을 가졌다.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리에 따라 서체의 이름을 ‘한글재민체’로 짓고 ‘한글재민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하여 모든 국민이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1.0』, 공유마당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10.8.

한글재민체는 세계시민의 끝끝이다. 이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 시민을 위해 개발한 글자체이다 하철용, 개인 교신. 단아하게 정돈된 현대적 감성의 폰트로서 편히 쓸 수 있는 깔끔하고 미려한 서체이다.

박갑수, 개인 교신



동양고전에 등장하는 ‘민민’에는 다음의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임금님을 상대어로 하는 백성 즉 인민人民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을 상대어로 하는 백성 즉 생민生民이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민민은 첫 번째에서 언급한 인민人民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成公元年)에서 말한 “옛날에는 네 부류의 백성이 있었으니, 사민士民·상민商民·농민農民·공민工民이 그것이다.”(古者有四民, 有士民, 有商民, 有農民, 有工民.)라는 글에 나오는 ‘민민’이라든가, 『대학大學』經1章에 나오는 “대학大學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을 친애하는 데 있고, 지극한 선에 머무는 데 있다.”(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고 할 때의 ‘민민’은 모두 임금을 상대어로 하는 인민人民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민민’에는 두 번째에서 언급한 생민生民이라는 뜻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시경詩經』 「대아大雅·증민蒸民」에서 말한 “하늘이 수많은 백성을 내시면서, 모든 사물에 법칙을 부여하셨다. 백

성들은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天生烝民, 有物有則. 民之秉彝, 好是懿德.)에 나오는 ‘민민’이라든가, “하늘이 생민生民을 (이 땅에) 내리셨을 때부터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본성을 부여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蓋自天降生民, 則既莫不與之以仁義禮智之性矣.)고 하는 주희朱熹 「대학장구서大學章句序」에 나오는 ‘민민’은 모두 하늘을 상대어로 하는 생민生民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애당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천하天下라고 불렀고, 천하를 통치하는 사람을 천자天子라고 부른 데서 알 수 있듯이, 모든 것은 천天(하늘)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는 생민生民을 잘 기르고 자 하는 하늘의 뜻을 대행하는 사람일 뿐이며, 그런 점에서 천자가 통치하는 인민人民은 곧 하늘이 생명을 부여한 ‘생민生民’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본다면 인민人民보다 생민生民이 더욱 ‘민민’의 근원적이고 상위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재훈, 개인 교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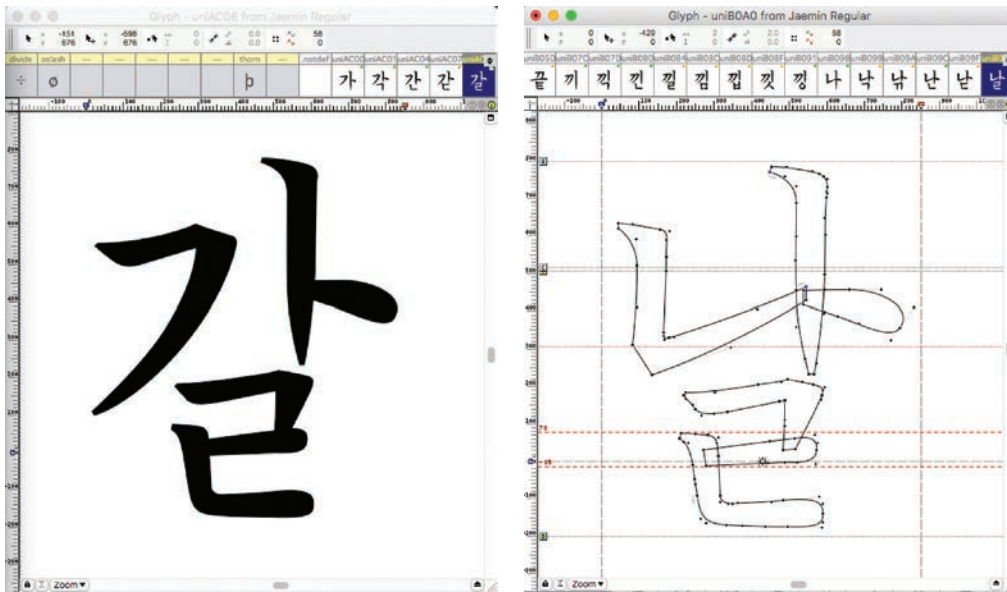


그림 3. 『한글재민체1.0』 제작 과정

이규선, 김민, 『구한말 사자관 寫字官 필체 기반의 폰트 디자인 - 대한의원개원칙서大韓醫院開院勅書에서 한글재민 1.0까지』, 기초조형학연구, 2021년, 22권 3호, 328쪽, 그림 17.

2. 『한글재민체2.0』

우리말 어휘의 상당수가 한자어인 까닭에 그 뜻을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한글과 한자의 병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특히 고문헌 인용문이나 지명, 인명과 같은 고유명사 및 동음이의어의 경우에는 한글 표기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별의 디지털 폰트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한글과 함께 쓰이는 한자, 영자, 숫자와 문장부호 등이 일관된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한자 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기성 폰트에서 한자가 제외되는 현실이다. 국한문 혼용 칩서의 붓글씨체에서 탄생한 한글재민체에는 한글과 동일한 스타일의 한자가 탑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여 2020년 한글재민체를 무료 배포한 이후부터 한자 개발을 시작하였다. 대한의원개원 칩서에서 123자, 장서각이 지원해준 국한문 혼용 외교문서들 한국학중앙연구원 윤진영, 박용만 제공 중에서 총 176자를 발췌하여 재민한자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였으며, 신신호 회장(일출 김충현과 여초 김응현의 제자)은 한글재민체의 획과 느낌이 유사하다고 추천한 저수량褚遂良(596~658) 서체로 연구팀원들은 한자 구조의 기초를 다질 수가 있었다. 그 이후 서예 관련 도서의 출판과 한자 폰트의 인쇄 활용에 관심이 많았던 김현승 대표께서 한글재민체 및 저수량체와 느낌이 유사하다고 추천한 중국의 방송체仿宋體를 참고하여 KS표준한자 4,888자를 완성하고 2021년 11월 2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에서 한글재민체2.0을 발표하는 특별전을 가졌으며 이 또한 역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하여 2021년 11월 3일부터 모든 국민이 ‘한글재민체’를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2.0』, 공유마당 (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11. 3. 송나라 인쇄본 스타일을 본떠 1916년에 제작된 방송체는 대한의원개원 칩서와 시기도 비슷하였고 한글재민체와 스타일도 흡사하여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3. 『한글재민체3.0』

2022년 5월 25일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무료 배포 박재갑, 김민, 박윤정, 이규선, 『한글재민체韓契在民體3.0』, 공유마당 (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5. 25.를 시작한 한글재민체3.0 韓契在民體3.0 Hangeul Jaemin Font 3.0에는 기존 한글재민체2.0의 KS표준 한자 4,888자에 더하여 한국한자 203자와 박의 선조의 문집 한자 49자, 김채식 대표가 추천한 고문헌 한자 205자, 2021년 말 기준 대법원 인명용 한자 8,279자 중에서 중복자를 제외한 한자 총 8,682자를 탑재시켰다. 전국 지명 한자가 모두 포함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한국한자 203자를 발굴하여 디지털로 남긴 작업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1년에 무료 배포한 『한글재민체2.0』버전은 서예 작품의 세로쓰기 모본을 위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현대문 가로쓰기에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었고, 로만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 및 주요 문장부호에 개원 칩서의 멋을 오롯이 담지 못하였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한글재민체3.0』에서는 이러한 부족했던 부분까지 보완하여 수려한 글꼴로 완성하였다.

4. 『한글재민체4.0』, 『한글재민체5.0』
『한글재민체6.0』, 『한글재민체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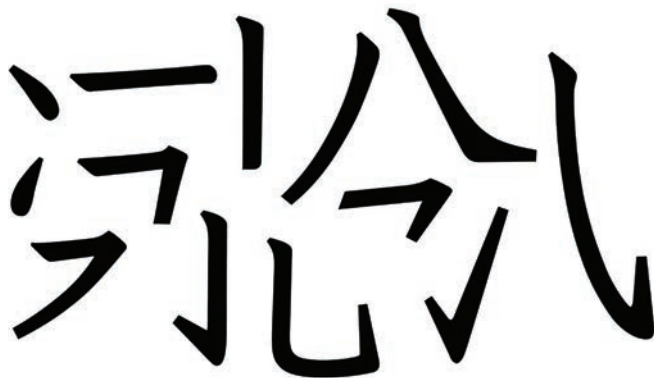
2022년 3월에는 중국에서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 과정으로 유학하러 온 진항가 생도가 새롭게 연구팀에 합류하여 숙원이었던 한글재민체의 국제화 작업이 착수되었다.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출시되는 간체자 폰트에는 약 25,000자의 글자가 수록되지만 한글재민체에는 중국인들의 일상에서 활용되는 표준 간체자 6,763자를 탑재시켰다. 진항가 박사과정생과 그의 지도교수 김민은 표준 간체자 6,763자를 약 6개월에 걸쳐 제작하였고 9월 가을학기에는 일본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친 또 다른 박사과정생 김지영이 연구팀에 추가 합류하여 일본 한자 6,776자와 히라가나 및 가타카나 문자 174자를 이듬해인 2023년 2월에 완성하게 되었다.

5월까지 기술적인 코딩작업까지 마치게 되면 국내 최고의 글꼴 전문기업 (주)윤디자인그룹을 통하여 전국의 대학, 공공기관과 도서관 등에 한글, 로만, 아라비아숫자, 번체, 간체, 가나 문자 및 일본표준 한자를 동일한 필체로 개발한 ‘한글재민체4.0’ 5만 벌을 무료로 배급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6,700여종의 디지털 폰트가 개발되어 있으나 한글과 로만문자, 번체자, 간체자, 일본 문자까지 동일한 모양의 자소로 구성된 디지털 폰트는 매우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매우 높다고 자평한다. 동일한 한자문화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용

하는 번체자繁體字는 물론, 이웃 중국의 간체자簡體字와 일본 문자(和文字)를 한글과 비슷한 느낌으로 디자인하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역시 개발시간과 비용에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한자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이라 하겠다. 하지만 역시 한 벌의 서체라는 것이 한글과 로만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한글재민체는 2019년부터 4년간 많은 이들이 순수한 학술적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가능했던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다.

2023년 한글날에는 현재 진행 중인 본문용 11,172자의 『한글재민체 5.0』과 세계 모든 언어의 소리를 표기할 수 있는 풀어쓰기 전용 『한글재민체6.0』이 동시에 출시된다. 세모꼴의 반치음을 비롯하여 훈민정음에서 사라진 네 개의 자음과 순경음 체계를 부활시키고 약 60여종의 새로운 자소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이호영 교수와 김민이 박사과정을 지도하는 수원여자대학교 김미애 교수가 중심이 되어 연구하고 있으며, 풀어쓰기 타이핑을 위한 입력시스템 개발은 (주)윤디자인그룹에서 기술을 지원하여 완성된다. 또한 올해 제1회 한글재민서예대전에서 우수상 격인 ‘윤디자인상’을 수상하는 작품은 2024년 한글날에 『한글재민체7.0』 이름으로 제작되어 무료 보급될 계획이다. 앞으로도 매년 『한글재민체연구회』가 주최하는 『한글재민서예대전』을 통해 더 많은 신진 작가와 아름다운 서체가 발굴될 것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한글문화는 나날이 성숙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4. 『한글재민체』 한자 획의 특징



韩文	汉字	
사	主	宋
더	弟	力
노	三	正
마	目	品
고	卷	存

그림 4, 5, 6. 『한글재민체4.0』 제작 과정

—
진항가陳鳳嘉, 김민金民, 『韓契在民體-韓國字體設計界的新突破』, 상하이 방직(주)회사 上海紡織控股(集團)公司, volume 456, 74~76쪽

그림 5. 『한글재민체』 간체자

永

羽秘展冲娘博骗延菲继
君复喃噜渠李鹭烧梦恋
食扑瞠纒国韩懒利婚磨
租仿埃糖跟学乌连圭鸵
神查仙家文民爱须剧蛋
符凉幔贪面嘉赢郑容树
浮请莽岚凰道在腾丞善
智姆熙陈批涂篇飘演模

그림 6. 『한글재민체』 간체자, 번체자 비교

气	厂	广	习	云	虫
氣	廠	廣	習	雲	蟲

대한민국大韓民國アヅア대륙大陸동북부トウふくブ東北
 部ノカンソトウ韓半島ニ위치イチ位置ツテイル민주ミ
 ソツユウキョウワコク共和國デツト수도首都はそう
 るトクベツツ特別市

あ	い	う	え	お	か	が
asi-hira	u-hira	e-hira	o-hira	ka-hira	ga-hira	
き	く	け	こ	さ	し	じ
ki-hira	ku-hira	ke-hira	ko-hira	sa-hira	si-hira	ji-hira
す	せ	そ	た	ち	っ	つ
su-hira	se-hira	so-hira	ta-hira	chi-hira	tsu-hira	tsu-hira
づ	と	ど	な	ぬ	ね	の
du-hira	to-hira	do-hira	na-hira	nu-hira	ne-hira	no-hira
ば	び	ぷ	へ	べ	ほ	ぼ
ba-hira	bi-hira	pu-hira	he-hira	be-hira	ho-hira	bo-hira
ぽ	ま	み	め	も	や	ゆ
po-hira	ma-hira	mi-hira	me-hira	mo-hira	ya-hira	yu-hira
ら	り	る	れ	ろ	わ	ゑ
ra-hira	ri-hira	ru-hira	re-hira	ro-hira	wa-hira	we-hira
ア	イ	ウ	エ	オ	カ	キ
a-kata	i-kata	u-kata	e-kata	o-kata	ka-kata	ki-kata
ギ	ク	ケ	コ	サ	ザ	ツ
gi-kata	ku-kata	ke-kata	ko-kata	sa-kata	za-kata	tsu-kata
ズ	セ	ソ	タ	チ	ヂ	ツ
zu-kata	se-kata	so-kata	ta-kata	chi-kata	chi-kata	tsu-kata
テ	ド	ナ	ニ	ネ	ノ	ハ
te-kata	do-kata	na-kata	ni-kata	ne-kata	no-kata	ha-kata
ヒ	ピ	フ	ブ	プ	ヘ	ベ
hi-kata	pi-kata	fu-kata	bu-kata	pu-kata	he-kata	be-kata
マ	ミ	ム	メ	モ	ヤ	ユ
ma-kata	mi-kata	mu-kata	me-kata	mo-kata	ya-kata	yu-kata
リ	ル	ロ	ワ	ヰ	ヲ	ヱ
ri-kata	ru-kata	ro-kata	wa-kata	wa-kata	wa-kata	wa-kata
ケ	ー	ヅ	ヰ	ヱ	ヱ	ヱ
ke-kata	ke-kata	zu-hira	vu-hira	ve-kata	vo-kata	vo-kata

그림 7. 『한글재민체』 일본 가나문자

김지영, 자료 제공, 2023. 2.

6. 『한글재민체3.0』 한자 8,682자

韓契在民體3.0 漢字 8,682字
8,682 Hanja Characters
[KSX1001 한자 4,888자]

황색글자 :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한자' 203자

伽佳假價加可呵哥嘉嫁家暇架枷柯歌珂茄稼苛茄街袈訶賈跏軻迦駕刻却
各恪慤殼珏脚覺角閣侃刊墾奸姦干幹懇揀杆柬桿澗癩看礪稈竿簡肝艮艱
諫間^ㄱ喝曷渴碣竭葛褐蝎鞫勘坎堪嵌感憾戡敢柑橄減甘疳監瞰紺邯鑑鑿
龕匣岬甲胛鉀闌剛垆姜岡崗康強彊慷江薑疆糠絳綱羌腔舡薑襁講鋼降鯨
介价個凱塏愷愷慨改概漑疥皆盖箇芥蓋鎧開喀客坑粳羹醱倨去居巨拒据
據舉渠炬祛距踞遽鉅鋸乾件健巾建愆捷捷虔蹇鍵騫乞傑杰桀儉劍劔檢驗
鈐黔劫怯^ㄷ偈憇揭擊格橄激膈覘隔堅牽犬甄絹繭肩見譴遣鶻抉決潔結缺
訣兼慊箝謙鉗鎌京徑倥傾倣勁勅卿垆境庚徑慶憬擎敬景曝更梗涇炅炯瓔
璣瓊瘻硬磬竟競綱經耕耿脛莖警輕逕鏡頃頸驚鯨係啓堺契季屆悸戒桂械
棨溪界癸礪稽系繫繼計誠谿階鷄古叩告呱固姑孤尻庫拷攷故敲暘枯槁沽
痼阜率稿羔考股膏苦苾菰藁蠱袴誥辜錮雇顧高鼓哭斛曲楛穀谷鵠困坤崑
昆梱棍滾琨袞鯤汨骨供公共功孔工恐恭拱控攻珙空蚣貢鞏^ㄴ寡戈果瓜科
菓誇課跨過鍋顆廓擲藿郭冠官寬慣棺款灌琯瓘管罐菅觀貫關館刮忽括适
佻光匡壙廣曠洸吹狂珖筐胱鑛卦掛罨乖傀塊壞怪愧拐槐魁宏紘肱轟交僑
咬喬嬌嶠巧攬教校橋狡皎矯絞翹膠蕎蛟較輻郊餃驕絞丘久九仇俱具勾區
口句咎嘔坵垢寇嶇廐懼拘救枸樞構歐毆毬求溝灸狗玖球瞿矩究絀耆白舅

舊苟衢謳購軀逌邱鈎鉢駒驅鳩鷗龜國局菊鞠鞠麴君窘群裙軍郡堀屈掘窟
宮弓穹窮芎躬倦券勸卷圈拳捲權港眷厥獮蕨蹶闕机櫃潰詭軌饋晷歸貴鬼
叫圭奎揆槻珪硅窺竅糾葵規赴達閨勻均昀筠菌鈞橘克剋劇戟棘極隙僅劬
勤慙斤根槿瑾筋芹董覲謹近謹今姁擒吟檣琴禁禽芩衾衿襟錦及及急扱汲
級給亘兢矜肯企伎其冀嗜器圻基埼夔奇妓寄岐崎己幾忌技旗旣朞杞棋
棄機欺氣汽沂淇玳琦琪璣璣畸畿碁磯祁祇祈祺箕紀綺羈耆耜肌記譏豈起
錡鋌飢饑騎騏驥騏緊佶吉拮桔金喫儺娜懦拏拿那諾暖煖難捏捺南柑楠浦
男納衲囊娘乃內奈柰耐女年撚季念恬拈捻寧甯努奴弩怒璫駑濃膿農惱腦
尿嫩訥忸紐能尼泥匿溺多茶丹亶但單團壇彖斷旦檀段湍短端箎級蛋袒鄆
鍛捷達獺疸達啖坳擔擔曇淡湛潭澹痰聃膽蕁覃談譚鈇杏畚答踏逌唐堂塘
幢慙撞棠當糖螳黨代坳坩大對岱帶待戴擡玳臺袋貸隊黛宅德惠倒刀到圖
堵塗導屠島嶋度徒悼挑掉搗桃棹櫂淘渡滔濤燾盜睹禱稻荀覩賭跳蹈逃途
道都鍍陶韜毒瀆牘犢獨督禿篤燾讀墩惇敦吨噉焮焮豚頓𠄎突仝冬凍動
同懂東桐棟洞潼疼瞳童胴董銅兜斗杜料痘竇荳豆逗頭屯臀屯遁遯鈍得嶝
橙燈登等藤騰鄧騰喇懶癩羅蘿螺裸邏洛烙珞絡落酪駱亂卵欄樂瀾爛蘭鸞
刺辣嵐孳攬欖濫籃纜藍襪覽拉臘蠟廊朗浪狼琅瑯螂郎來峽徠萊冷掠略亮

倆兩凉梁樑粮梁糧良諒輛量侶儷勵呂廬慮戾旅櫛瀘礪藜蠣閭驢驪麗黎力
曆歷瀝礫轆靈憐戀孿漣煉琏練聯蓮輦連鍊冽列劣冽烈裂廉斂殮濂簾獵令
伶囹岑嶺伶玲苓矚聆聆逞鈴零靈領齡例禮醴隸勞撈擄櫓潞瀘爐盧老蘆
虜路輅露魯鷺鹵碌祿綠葦錄鹿麓論壘弄隴瀧瓏籠聾儻瀨牢磊賂賚賴雷了
僚寮廖料燎療瞭聊蓼遼鬧龍壘婁屢樓淚漏瘦累縷萋樓鏤陋劉旒柳榴流溜
瀏琉瑠留瘤硫謬類六戮陸侖倫崙淪綸輪律慄栗隆勒肋凜凌楞稜綾菱陵俚
利厘吏唎履悞李梨湮犁狸理璃痢籬罹羸莉裏裡里釐離鯉吝潏潏璘蘭躡隣
鱗鱗淋琳臨霖砒立笠粒摩瑪痲碼磨馬魔麻寞幕漠膜莫邈万卍婉巒彎慢
挽晚曼滿漫灣瞞萬蔓蠻輓饅鰻恠抹末沫茱襪鞋亡妄忘忙望罔芒茫莽輶
邛埋妹媒寐昧枚梅每煤罵買賣邁魅脈貊陌驀麥孟氓猛盲盟萌冪覓免冕勉
棉沔眄眠綿緬面麵滅蔑冥名命明暝恠溟皿暝茗莫螟醕銘鳴袂侮冒募姆帽
慕摸摹暮某模母毛牟牡瑁眸矛耗茅茅謀謨貌木沐牧目睦穆驚歿沒夢朦蒙
卯墓妙廟描昴杏渺猫鈔苗錨務巫撫懋戊拇撫无楸武毋無珣畝繆舞茂蕪誣
貿霧鷓墨默們勿吻問文汶紊紋聞蚊門雯勿沕物味媚尾媚彌微未棍棍槁涓
眉米美薇謎迷靡黻岷悶愍憫敏旻旻汶民泯玟珉緡閔密蜜謚剝博拍搏撲朴樸
泊珀璞箔粕縛膊舶薄迫雹駁伴半反叛拌搬攀斑槃泮潘班畔癥盤盼磬礮礮
絆般蟠返頌飯勃拔撥渤潑發跋釅鉢髮魃倣傍坊妨尨幫仿房放方旁昉枋榜
滂磅紡肪膀舫芳莠蚌訪謗邦防龐倍俳培俳拜排杯湃焙盃背胚裴裴褻賠輩

配陪伯佰帛柏栢白百魄幡樊煩燔番繁蕃藩翻伐筏罰閔凡帆梵汜汎泛犯範
范法珙僻劈壁擘槩壁癖碧藥闢霹卞弁變辨辯邊別瞥驚鼈丙併兵屏并哂曷
柄棟炳瓶病秉竝駢餅駢保堡報寶普步泐淥漶珣甫菩補祿譜輔伏僕匍卜宓
復服福腹苾蔔複覆輓輻馥馥本**曳**俸奉封峯峰捧棒烽烽琤縫蓬蜂逢鋒鳳不
付俯傅剖副否咐埠夫婦孚孵富府扶敷斧浮溥父符簿缶腐腑膚煇芙苾訃負
賦賻赴趺部釜阜附駙鳧北分吩噴墳奔奮忿憤扮吩汾焚盆粉糞紛芬賁霽佛
弗拂拂崩朋棚棚繡鵬丕備匕匪卑妃婢庇悲憊扉批斐枇榧比毖毗毘沸毳痺
砒碑秕秘粃緋翡肥脾臂菲蜚裨誹譬費鄙非飛鼻噸嬪彬斌檳殯浜濱瀕牝玼
貧賓頻憑氷聘騁乍事些仕伺似使俟僊史司唆嗣四士奢娑寫寺射巳師徙思
捨斜斯柶查梭死沙泗渣瀉獅砂社祀祠私飾紗絲肆舍莎蓑蛇裳詐詞謝賜赦
辭邪飼駟麝削朔傘刪山散汕珊產疝算蒜酸霰**沙**撒殺煞薩三杉森滲苳蓼衫
插澁釵颯上傷像償商喪嘗孀尙岫常床庠廂想桑椹湘爽牀狀相祥箱翔裳觴
詳象賞霜塞璽賽嗇穡索色牲生甥笙墅壻嶼序庶徐恕抒摯敘暑曙書栖棲犀
瑞筮絮緒署胥舒薯西誓逝鋤黍鼠夕爽席惜昔哲析汐浙瀉石碩蓆釋錫仙僊
先善嬋宣扇散旋渲煽琬瑄璇璿癩禪線繕羨腺膳船薜蟬詵跣選銑**鏹**饒鮮高
屑楔泄洩渫舌薛褻設說雪齧剡暹殲纖蟾贍閃陝攝涉燮城姓戍性惺成星晟
猩城盛省箴聖聲腥誠醒世勢歲洗稅筮細貫召嘯塑宵小少巢所掃搔昭梳沼
消溯瀟炤燒甦疏疎瘡笑篠簫素紹蔬蕭蘇訴迢遯邵銷韶騷俗屬束涑粟續謾

贖速孫巽損蓀遜飡率宋悚松淞訟誦送頌刷灑碎鎖衰釗修受嗽囚垂壽嫂守
岫岫帥愁戍手授搜收數樹殊水洙漱燧狩獸琇璵瘦睡秀穗豎粹綏綏繡羞脩
茱菟蓀藪袖誰讐輸遂邃酬銖銹隋隧隨雖需須首髓鬚叔塾夙孰宿淑瀟熟琬
璫肅菽巡徇循恂旬枸楯櫛殉洵淳珣盾瞬荀純脣舜荀蓴薜詢諄醇錚順馴戍
術述鉢崇崧嵩瑟膝蝨濕拾習褶襲丞乘僧勝升承昇繩蠅陞侍匙嘶始媿尸屎
屍市弒恃施是時柿柴猜矢示翅蒔著視試詩諡豕豺埴寔式息拭植殖湜熄養
蝕識軾食飾伸侏信呻娠宸慎新晨燼申神紳腎臣莘薪蓋蜃訊身辛迅失室實
悉審尋心沁深瀋甚苾謀什十雙氏亞俄兒啞娥峨我牙芽莪蛾衙訝阿雅餓鴉
鵝聖岳嶽幄惡愕握樂渥鄂鍰鰐齧安岸按晏案眼雁鞍顏鮫幹謁軋闕唵岩
巖庵暗癌菴閤壓押狎鴨仰央快昂殃殃鴛厓哀埃崖愛曖涯碍艾隘靄厄扼掖
液縊腋額櫻罌鶯鸚也俶冶夜惹挪椰爺耶野弱約若葯莧藥躍佯壤孃恙揚攘
敷暘楊樣洋漾湯痒瘍襠襠羊襄讓釀陽養囿御於漁瘵禦語馭魚齧億憶抑憶
臆偃堰彦焉言諺孽孽俺儼嚴奄掩淹業業卍予余如歟汝璵璵與餘茹輿輦餘
亦域役易疫繹譯逆驛嚙堧妍娟宴延捐挺椽沈沿涎涓淵演烟然煙燃燕研硯
筵緣縝衍軟鉛鳶悅涅熱閱厭染炎焰琰艷苒閭髯鹽曄燁葉莖嶸影映映楹榮
永泳漢潁滌瀛潛煥營獰瑛瓔盈穎纓英詠迎鏌龔乂倪刈叡曳汭濊猊睿穢芮
藝藥裔詣譽豫銳霓預五伍佻傲午吾吳鳴塢塢奧娛寤悟懊敖昨晤梧污澳烏
熬熬奠蜈誤鰲鰲屋沃獄玉鈺溫璵瘟穩縕蘊兀壅擁瓮甕癰翁邕雍饗渦瓦窩

窪臥蛙蝸訛婉完宛椀碗浣玩琬琰碗緩翫腕腕莞琬阮頑曰往旺枉汪王倭娃
歪矮外鬼巍猥畏僥凹堯夭妖姚寥嶢拗搖撓擾曜橈耀瑤窈窕繇繞耀腰繞要
謠遙邀饒慾欲浴縟褥辱俑傭冗勇壟墉容庸憑榕涌湧溶熔瑤用甬聳茸蓉踊
鎔鏞于佑偶優又友右宇寓尤愚憂吁牛玕瑀孟祐禍禹紆羽芋藕虞迂遇郵鈺
隅雨雩勛或旭昱栢煜穢郁頊云檉殞湮煩耘芸蕓運隕雲韻蔚鬱亏熊雄元原
員圓園垣媛嫫冤怨愿援沅洹浚源爰猿瑗苑袁轅遠院願鴛月越鉞位偉偽危
圍委威尉慰暉渭爲瑋緯胃萎葦薦蝟衛禕謂違韋魏乳侑儒兪唯喻孺宥幼幽
庾悠惟愈愉揄攸有柔柚楡檣油洧游濡猶猷瑜由癒維史莢裕誘諛諭踰蹂遊
逾遺酉釉鑰墉毓肉育允齋尹潤玗胤贛銳閏聿戎灑絨融垠恩慙殷閭銀隱乙
吟淫蔭陰音飲揖泣邑凝應膺鷹依倚儀宜意懿擬椅毅疑矣義熾蕙蟻衣誼議
醫二以伊夷姨已弛彝怡爾珥異瘕移而耳肄苾蕘貽貳邇飴餌瀼益翊翌翼謚
人仁刃印咽因姻寅引忍湮緗茵蚓認勒勒一佚佻壹日溢逸鎰駟任壬妊姪恁
稔荏賃入什仍剩孕苈仔刺咨姊姿子字孜恣慈滋炙煮茲瓷疵磁紫者自茨蔗
藉諮資雌作勺嚼斫昨灼炸爵綽芍酌雀鵲孱棧殘潺盞岑暫潛箴簪蠶雜丈仗
匠場墻壯獎將帳庄張掌暉杖樟檣穢漿牆獐璋章粧腸臟臧莊葬蔣薈藏裝賊
醬長障再哉在宰才材栽梓澣滓災絳裁財載齋齋爭箏諍錚佇低儲咀姐底抵
杵楮杼沮渚狙猪疽箸紵苧菹著蓍詛貯躋這邸睢齟勳吊嫡寂摘敵滴狄的積
笛籍績翟菽謫賊赤跡蹟迪迹適鎬佃佻傳全典前剪墁塿奠專展廛俊戰栓殿

甌澱煎瑛田甸畑癩笱笈箭篆纏詮輾轉鈿銓錢鑄電顛顛餞切截折浙癩竊節
絕占岫店漸点粘霑鮎點接摺蝶丁井亭停偵呈妊定幘庭廷征情挺政整旌晶
最枉楨檉正汀淀淨渟瀆瀨炗玳珽町晴碇禎程穽精縱艇訂諄貞鄭酊釘鉦鋌
錠霆靖靜頂鼎制劑啼堤帝弟悌提梯濟祭第臍薺製諸蹄醍除際霽題齊俎兆
凋助嘲弔彫措操早晁曹朝條棗槽漕潮照燥爪皦眺祖祚租稠窀粗糟組繰
肇藻蚤詔調趙躁造遭釣阻雕烏族簇足鏃存尊卒拙猝侏宗從悰慙棕淙琮種
終綜縱腫踪踵鐘鐘佐坐左座挫罪主住侏做姝胄呪周嗾奏宙州廚晝朱柱株
注洲湊澍炷珠疇籌紂紬綢舟蛛註誅走躄輳週酌酒鑄駐竹粥俊儁准埃窩峻
峻樽浚準濬浚竣蠹逡遵雋駿茁中仲衆重卽櫛楫汁葺增憎曾拯烝甑症繪
蒸證贈之只咫地址志持指摯支旨智枝枳止池沚漬知砥祉祗紙肢脂至芝芷
蚰誌贄趾遲直植稷織職唇噤塵振摺晉晉振榛殄津溱珍璿璿畛疹盡眞瞋秦
縉纈臻陳衫診賑軫辰進鎮陣陳震侄叱姪嫉帙桎瓊疾秩窒腔蛭質跌迭斟朕
執漵緝輯鏢集徵懲澄且侘借又嗟嗟差次此磋筍蹉車遮捉擗着窄錯鑿齷撰
濼燦璨瓊竄纂纂粲纘讚贊鑽餐饌刹察擦札紮僭參塹慘慙懣斬站讒讖倉倡
創唱娼廠彰愴敞昌昶暢槍滄漲猖瘡窓脹倉菖蒼債塚冢寨彩採砦綵菜蔡采
釵冊柵策責淒妻悽處倜剔尺憾戚拓擲斥滌瘠脊蹠陟隻仟千喘天川擅泉淺
玕穿舛薦賤踐遷釧闡阡韃凸哲喆徹撤澈綴輟輟鐵僉尖沾添恬瞻簽籤詹詔
堞妾帖捷牒疊睫諜貼輒廳晴清聽菁請青鯖荊替涕滯締諦逮遞體初剿哨樵

抄招梢椒楚樵炒焦硝礁礎秒稍肖艸茗草蕉貂超酢醋醮促囑燭蠹蜀觸寸忖
村邨叢塚寵恩惚摠總聰蔥銃撮催崔最墜抽推椎楸樞湫皺秋芻菽諏趨追鄒
酋醜錐錘鎚雛騶鯁丑畜祝竺筑築縮蓄蹙蹴軸逐春椿璿出朮黜充忠沖蟲衝
衷悴腓萃贅取吹嘴娶就炊翠聚脆臭趣醉驟驚側仄厠側測層侈值嗤峙幟恥
梔治淄熾痔痴癡稚穉緇緻置致蚩輜雉馳齒則勅飭親七柒漆侵寢枕沈浸琛
砧針鍼蟄秤稱快他咤唾墮妥惰打拖朶檣舵陀馱駝倬卓啄圻托擢晫柝濁濯
琢瑋託鐸吞嘆坦彈憚歎灘炭綻誕奪脫探眈耽貪塔搭榻宕帑湯蕩兌台太怠
態殆汰泰咎胎苔跽郤颯擇澤撐摠兔吐土討慟桶痛筒統通堆槌腿褪退頽偷
套妬投透鬪慝特闖坡婆巴把播擺杷波派爬琶破罷芭跛頗判坂板版辦販辦
飯阪八叭捌佩唄悖敗沛泐牌狽稗霸貝彭澎烹膨復便偏扁片篇編翩遍鞭騙
貶坪平枰萍評吠嬖幣廢弊斃肺蔽閉陞佈包匍匐咆哺圃布怖拋抱捕泡浦庖
砲胞脯苞葡蒲袍褒逋鋪飽鮑幅暴曝瀑爆倭剽彪慄杓標漂瓢票表豹飈飄驃
品稟楓諷豐風馮彼披疲皮被避陂匹弼必泌琰畢疋筆苾馥乏逼下何厦夏廈
昞河瑕荷蝦賀遐霞鰕壑學虐謔鶴寒恨悍旱汗漢澣瀚罕翰閑閒限韓割轄函
含咸啣喊檻涵緘艦銜陷鹹合哈盒蛤閤闔陝亢伉姪娣巷恒抗杭桁沆港缸肛
航項亥偕咳咳奚孩害懈楷海漉蟹解該諧邈駭骸劾核倖幸杏苻行享向嚮珣
鄉響餉饗香墟墟虛許憲櫬獻軒歇險驗奕赫赫革倪峴弦懸覓泫炫玄玗現眩
覓絃絢縣絃銜賢鉉顯子穴血頁嫌俠協夾峽挾泱狹脅脇莢鋏頰亨兄刑型形

